

The Me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의 허계영 번역 version)

출애굽기



- 여기에 실린 그림들은 '허계영의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 교재용으로 허설영(저희 큰언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입니다. 무단 복제를 삼가 주세요.
- 출처가 따로 표기되지 않은 그림은 AI가 그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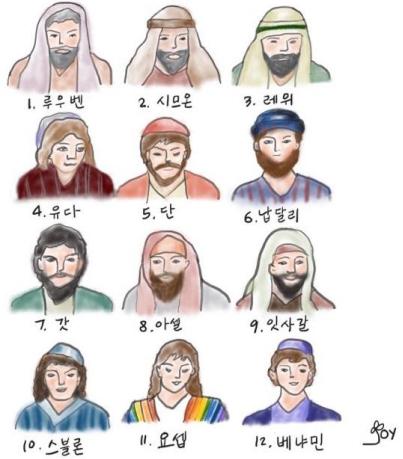
1 장

1-5 다음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들은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루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70 명이었어요. 한편, 요셉은 미리 애굽에 가 있었답니다.

6-7 그 후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당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계속 태어났어요. 그들은 매우 번성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가득 찼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구폭발이었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8-10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정권을 잡았어요. 왕은 긴장하여,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구억제정책을 세우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적군과 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릴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으니까....”

11-14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노동꾼으로 삼아, 현장감독 아래, 강제노동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식량비축 창고성읍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했지요. 하지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많은 아기를 낳았어요. 온 땅이 이스라엘 어린이 천지였어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학대했고, 힘든 노예 일로 그들을 멸하려 했어요. 애굽인들은 심한 강제노동-벽돌이랑 회반죽 만들기, 그리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밭일 하기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산더미 같이 많은 일거리와 잔혹하리 만큼 심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짓눌렀던 거예요.

15-16 애굽 왕이 히브리인 산파 두 명을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그들 산파 이름은 십브라와 부아였어요. 왕이 말했어요.

“그대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받을 때, 아기의 성별을 봐서, 사내아이면 죽이고, 계집아이면 살려두게.”

17-18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내아기들도 살려줬어요.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말했어요.

“왜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건가? 아기들을 살려두다니!”

19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 같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체력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더라고요.”

20-21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수가 점점 더 늘어나,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안도 번성시켜 주셨어요.

22 그래서 바로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청와대 기자회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하지만 계집아이는 살려둬도 좋다.”



Joy

2장

모세

1-3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는 아기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아기를 숨겼어요. 그렇게 3 개월간 아기를 숨겨 키웠죠. 하지만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파피루스 바구니를 작은 배처럼 만들어 타르와 역청을 발라 방수처리한 후, 그 안에 아기를 뉘었어요. 그리고는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숲 속에 띄워 놓았죠.



4-6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기의 누나가 아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고, **마침** 시녀들이 강둑을 거닐게 되었지 뭐예요? **마침** 공주는 갈대 사이에 떠 있는 바구니배를 보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분부했어요. 공주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 아기가 **마침** 울고 있지 않겠어요? 순간 공주는 **마침** 아기에게 찐~하고 짠~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아이는 분명 히브리족 아기일 거야.”

⁷ 그러자 아기 누나가 **마침** 공주 앞에 나타나 말했어요.

“제가 가서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올까요? 유모가 공주마마를 위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말예요.”

⁸ 그러자 바로의 딸이 **마침** 말했어요.

“그래, 그러려무나.”

그러자 소녀가 가서 아기 엄마를 데려왔어요.

⁹ 바로의 딸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 청이 하나 있소.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주시게. 내 사례는 섭섭잖게 하리다.”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어요.

¹⁰ 아기가 젖을 땐 후, 여인은 아기를 입양했던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어요. 공주는 ‘내가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어’라면서 아기 이름을 모세(건짐)라고 지었어요.

¹¹⁻¹² 세월이 흘러 모세가 장성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가, 자기 형제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걸 봤어요. 그때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인-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게 눈에 띄었어요. 모세는 주변을 살핀 후,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CCTV 유무도 함께^^)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¹³ 다음날 모세가 그곳에 다시 가봤더니(범죄 현장에 다시 가보는 범죄자 심리^^)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우고 있지 뭐예요? 모세가 먼지 시비를 건 사람에게 말했어요.

“왜 동포를 때리는 거요?” (오지랖 모세^^)

¹⁴ 그러자 그 남자가 되받아쳤어요.

“헐~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모세는 너무 놀랐어요. 완전 패닉이었죠.

“탄로 났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완전범죄인 줄 알았는데...ㅠㅠ)



¹⁵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모세는 이미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뒤였어요. (애굽의 조중동 모두 1 면 헤드라인, '모세 왕자, 잠수 탄다!^^') 얼마 후 모세는 미디안 땅의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¹⁶⁻¹⁷ 미디안의 제사장에게는 딸 일곱이 있었어요. (르 진사 댁 일곱 딸^^) 그 딸들이 물을 길러 와서는 여물통에 물을 채워, 자기 아버지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런데 몇몇 목동들이 와서는 그 아가씨들을 쫓아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자 모세가 아가씨들을 구해줘, 다시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 줬어요. (모세 오빠, 짱!^^)

¹⁸ 소녀들이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르우엘이 말했어요.

"오늘은 일이 금방 끝났구나.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¹⁹ 딸들이 말했어요.

"어떤 애굽 사람이 목자들 패거리에게서 우릴 구해줬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위해 물도 길어주고, 우리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기도 했지 뭐예요?"

²⁰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니? 같이 데려오지 그랬어? 와서 우리랑 같이 밥 먹자고 어서 불러오거라."

²¹⁻²²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모세는 르우엘네 집에서 같이 살기로 동의했고, 르우엘이 자기 딸 십보라(새, bird)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얼마 후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가 '난 타향살이 나그네로구나'라면서 아기 이름을 게르솜(나그네)이라고 지었어요.

²³ 세월이 흘러 애굽 왕이 세상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노예생활에 신음하며 울부짖었어요. 강제노동을 못 이겨 터져 나온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²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죠.

²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 처지를 헤아리셨던 거예요.



3장

¹⁻²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어느 날, 모세는 광야 서쪽 끝까지 양떼를 몰고 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요. 그때 덤불 한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가 살펴보니, 덤불에 불꽃은 타오르는데, 덤불이 타 없어지지는 않지 뭐예요?

³ 모세가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믿을 수가 없는 걸? 정말 놀라운 일이네! 도대체 덤불이 어떻게 타 없어지지 않는 걸까?"



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발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걸 지켜보시다가, 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말했어요.

"네? 저 여기 있어요."

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거라. 그리고 네 발에서 샌들을 벗거라. 넌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단다."

⁶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겁이 나, 차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얼굴을 가렸어요.

⁷⁻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당하는 걸 오랫동안, 그것도 아주 자세히 지켜봤단다. 또 그들의 노예 주인에게서 건져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지. 난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주려 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활한 땅, 우유랑 꿀이 넘쳐나는, 그 좋은 땅으로 데려가려 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말야.

⁹⁻¹⁰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또 애굽인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학대받는지도 다 봤지. 이젠 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널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해 주련다."

¹¹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죠? 왜 굳이 제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아직 지명수배 중일 텐데…ㅠㅠ)

¹²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랑 함께 가 주마.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바로 여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마. 그게 바로, 내가 널 보냈다는 증거란다.”

¹³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한테 보내셨어요’라고 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 이름이 뭔데요?’라고 물을 텐데... 그럼 뭐라고 하죠?”

¹⁴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나는 나(I-AM-WHO-I-AM)]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나는 나]라는 분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라고 하거라.”

¹⁵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은 바로 이거란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한테 보내셨어요.’ 이것-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이름이었지. 앞으로도 나는 쭉~ 이렇게 불릴 거야.”

¹⁶⁻¹⁷이제 떠나거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전하렴. ‘하나님,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줄곧 자세히 살피고 있었단다. 그래서 난 이제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 우유랑 꿀이 넘쳐나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단다.’

¹⁸그럼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날 믿어. 그리고 넌 이스라엘 리더들과 함께 애굽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3 일 길 떨어진 광야로 가, 거기에서 하나님-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¹⁹⁻²²하지만 애굽 왕은 웬만해서는 너희를 놓아 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애굽을 치려고 해. 그래,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휘청하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야 그들이 ‘제발 좀 떠나주세요!’라고 간청하면서 너희를 보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모든 여인들이 이웃이랑 자기 집에 있는 객들한테 금은보화랑 여분의 옷가지들을 달라고 해서 그걸로 너희 아들딸들을 입히게 될 거야. 이렇게 너희는 애굽인들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나오게 될 거란다.”

4장

¹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토를 달았어요.

“그 사람들, 제 얘길 전혀 안 믿을 걸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라구요. 분명 이럴 걸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타나셨다고? 헐~! 도대체 말 같은 소릴 해야지!’”

²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지?”

“지팡이죠.”

³“그거 땅에 한 번 던져 보렴.”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 뭐예요? 모세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⁴⁻⁵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손을 뻗어 뱀 꼬리를 잡아 보거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을 잡았더니 뱀이 어느새 지팡이로 도로 변하지 않았겠어요?

“이걸로 나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음을 그들이 믿을 게다.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음을 믿을 거라구.”

⁶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렴.”

그러자 모세가 자기 옷 속에 손을 넣었다가 꺼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모세의 손 위에 마치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생겼지 뭐예요?

⁷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옷 속에 다시 손을 집어넣어 보거라.”

그래서 모세가 한번 더 손을 넣었다가 꺼냈더니, 세상에! 이번엔 원래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⁸⁻⁹“설사 그들이 첫번째 표적으로는 널 안 믿는다 해도, 두번째 표적은 믿을 거다. 하지만 만일에 두 가지 표적을 다 행했는데도 널 안 믿고 네가 전하는 ‘메시지’도 안 믿으면,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봇거라. 그럼 강물이 땅에 쏟아지는 순간, 곧 피로 변할 거다.”

¹⁰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았어요.



"주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전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렇고, 전 항상 말을 잘 못했다구요! 제가 엄청 더듬거리고 벼벽거린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못한다는 말은 안 더듬고 잘함^^)

¹¹⁻¹²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넌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이 멀쩡한 사람이나 시각장애인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나님, 바로 내가 만들지 않았니? 그러니 어서 가거라. 내가 너랑 함께 가 주마. 네 입이랑 같이 가 주겠다구! 내가 바로 네 입에 들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줄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어서 가려무나."

¹³ 모세가 말했어요.

"오,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¹⁴⁻¹⁷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 형 하나 있지? 레위 지파의 아론 말야. 아론은 말빨이 세잖아. 아론이 말 잘하는 것, 나도 잘 안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론은 정말 말을 잘 해. 사실은 지금 아론이 널 만나러 오는 중이란다. 아론이 널 보면 엄청 반가워할 거야. 네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아론한테 미리 얘기해 둬! 네가 말할 땐 내가 너랑 함께 해 주고, 아론이 말할 땐 아론이랑 함께 해 줄게. 그렇게 내가 한걸음한걸음 가르쳐 줄게. 네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결정하면, 아론이 네 대변인 노릇을 해줄 거야. 네 입이 되어줄 거라고. 그러니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가, 그걸로 표적을 행해 보이거라."

¹⁸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장인 어른, 애굽에 살고 있는 제 친척들한테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 아직 살아 계신지 좀 찾아뵈려구요."

그러자 이드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게. 평안히 가게나."

¹⁹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가거라. 애굽으로 돌아가. 널 죽이려던 자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 가!" (와우~! 공소시효 만료^^)

²⁰ 결국 모세는 아내랑 아들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쥔 채로 말이에요. (나 지금 떨고 있니?^^)

²¹⁻²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 준비 잘하거라. 내가 너를 통해 기적을 베풀 테다. 그럼 넌 그걸 바로 앞에서 행하면 돼. 하지만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만들 거고, 그 결과 바로는 여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할 게다. 그때 넌 '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한테 전하거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남이다! 내가 이미 너한테 '내 아들을 해방시켜서 날 섬길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도 넌 내 아들을 놔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네 아들, 네 장남을 죽일 테다!'

24-26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던 어느 날 밤, 그들은 야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죽이려 하셨어요. 그러자 십보라가 부싯돌 칼로(갑자기 석기시대로 타임슬립?^^) 아들의 포피를 벤 후, 그걸 모세의 몸에 갖다 대며 말했어요.

"오, 당신은 내게 '피의 남편'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모세를 놔주셨어요.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란 말을 굳이 쓴 것은, 그때 아들한테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었답니다.

27-28 한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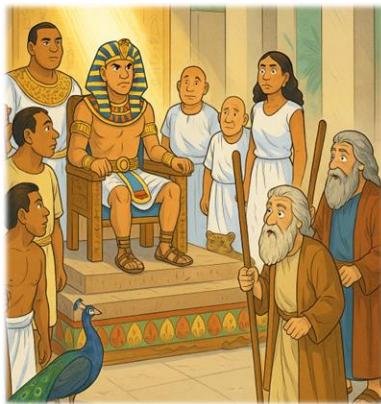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간 아론은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쳤어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한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전하실 '메시지'도 말해주고, 행하라고 명하신 기적도 알려 줬어요.

29-31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리더들을 전원 소집한 후, 아론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딱한 사정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5장

모세와 아론과 바로



¹ 그 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거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날 위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라.’”

² 그러자 바로가 말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줘야 하지? 이 ‘하나님’이라는 작자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참고로... 난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

³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어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 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질병이나 죽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⁴⁻⁵ 하지만 애굽 왕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세상에, 모세와 아론, 너희가 지금 이 백성들한테 휴가라도 주란 말이냐? 썩 물려가 일이나 하지 못할까?”

바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농땡이나 부리고 있는데, 그 대가로 포상휴가를 주라고?”

⁶⁻⁹ 그리고 바로는 곧바로 행동을 취했어요. 노예 감독들과 부감독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동안 히브리인들이 벽돌 만들 때 주던 짚을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 자기들이 직접 짚을 구해오라고 하라! 하지만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아야 한다. 하루 할당량을 경감시켜주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 휴가 좀 주세요!’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들을 철저히 단속해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환상’에 빠져 징징거리는 못된 병을 한 방에 고칠 수 있을 테니.”

¹⁰⁻¹² 노예 감독들과 부감독들이 새로 하달된 바로의 명령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갔어요.

“바로의 명령이다. 이제부터 더 이상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 너희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짚을 모아오도록 해라. 하지만 1 일 벽돌 생산 할당량에서 하나라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

그러자 백성들이 애굽 전역에 흩어져 짚을 주워 왔어요.

13 노예 감독들이 무자비하게 굴며 말했어요.

“이전에 짚을 제공받던 때랑 똑같이 1 일 벽돌 생산 할당량을
다 채워라.”

14 노예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인 현장 주임들을
때리면서 못살게 굴었어요.

“어저께랑 그저께도 벽돌 생산 할당량을 못 채우더니, 오늘
또 못 채웠다고?”

15-16 그러자 이스라엘인 현장 주임들이 바로에게 가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폐하, 폐하의 종들을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저희에게 짚도 제공해 주지 않으시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시다니요. 저희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매까지 맞았다고요. 저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17-18 하지만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게을러 빠져 가지고서는.... 태생이 게으른 것들! 이 게으름뱅이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주세요’라고 징징거리지. 썩 물러가 일이나 하지 못할까? 앞으로
짚은 일체 제공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녁 마감시간까지 벽돌 생산 할당량을 다 채워 놓는
게 너희 신상에 좋을 거다!”

19 이스라엘인 현장 주임들은,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일꾼들에게 돌아가
말했어요.

“생산 할당량을 다 채워야 한다는군. 안 그러면 알짤 없대!”

20-21 그들이 바로를 알현하고 돌아오던 중, 자기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의 보시고 심판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구먼. 당신들
때문에 바로랑 그 신하들이 우릴 버리지 취급하고 있단 말야! 당신들이, 우릴 죽이라고 바로
손에 칼을 쥐어 줬더구먼!”

22-23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 말했어요.

“나의 주님, 왜 이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몰아 부치시는 겁니까? 저는 또 왜 보내신 거고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한텐 간 순간부터, 백성들 상황은 악화일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백성을 구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이게 구출로 보이시나요?”



6장

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시행할 일을, 네가 보게 될 게다.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게다.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 줄 게다.”

²⁻⁶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능력의 하나님이지.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GOD, I-Am-Present ‘나는 살아있다’라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건 아니지만.... 난 그들이 전에 나그네로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한테 끊임없이 노예로 학대받으며 신음하는 소릴 듣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거라.”

⁶⁻⁸ ‘난 하나님이야. 난 너희를 애굽인들의 잔혹한 강제노동에서 이끌어낼 거란다. 너희를 노예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게다. 나는 엄청난 심판들을 행해, 너희를 속량해 주려고 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게다. 너희는 알게 될 게다. 내가 너희를 애굽인들의 잔혹한 강제노동으로부터 구해내 줄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란 걸....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에 너희를 데리고 가, 그 땅을 너희 국토로 주려고 해. 나는 하나님이란다.”

⁹ 이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힘든 노예생활에 진이 빠져, 극도로 낙심해 있었거든요.

¹⁰⁻¹¹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너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라’고 말하거라.”

¹²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는 걸요?”

¹³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한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일러주시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재차 명령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

¹⁴ 다음은 각 지파 별 족장들의 명단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남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로, 이들이 바로 르우벤의 가족이죠.

¹⁵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사울로, 이들이 바로 시므온의 가족이에요.

¹⁶ 레위의 아들들은 그 출생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므라리예요. 레위는 137 세까지 살았어요.

¹⁷ 게르손의 아들들을 가족 별로 정리하면, 립니와 시므이,

¹⁸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이에요. 고핫은 133 세까지 살았어요.

¹⁹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예요.

이들 모두 레위의 아들들인데, 위의 명단은 출생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²⁰ 아므람이 자기 고모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아므람은 137 세까지 살았어요.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겸 고모할머니?^^)

²¹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 네벡, 시그리예요.

²²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예요.

²³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낳았어요.

²⁴ 고라의 아들은 앗실, 엘가나, 아비아삽으로, 이들이 바로 고라의 가족이죠.

²⁵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해 비느하스를 낳았어요.

이들이 모두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 가족별로 정리한 거랍니다.

²⁶⁻²⁷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데리고 나오거라'라고 명령하신 이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놓아 주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죠.

²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이랬답니다.

²⁹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얘기한 걸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애굽 왕 바로에게 다 전하거라'라고 지시하셨어요.

³⁰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죠.

"절 좀 보시라구요. 제가 얼마나 말을 더듬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왜 제 말을 듣겠냐고요?"

7장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봐. 내가 널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네 예언자로 만들어주고. 넌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전하면 돼. 그럼 네 형 아론이 그걸 바로에게 전할 거고,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풀어줄 게다. 하지만 그때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만들고, 애굽에 표적과 이적을 가득 채울 게다. 물론 바로가 네 말을 안 듣겠지만, 내가 애굽에 엄청난 심판을 시행함으로써, 애굽에서 내 군사들-내 백성 이스라엘인들-을 이끌고 나올 게다. 그렇게 내가 직접 나서서 자기네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걸 보면, 애굽인들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게다.”

6-7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하려 간 것은 모세가 80 세, 아론이 83 세 때였어요.

8-9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너희한테 ‘직접 입증해 보거라. 기적을 시행해 보란 말이다’라고 하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형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세요! 그럼 뱀으로 변할 거예요.’”

10 모세와 아론은 바로한테 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어요.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11-12 그러자 바로가 자기의 현인(賢人)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였고, 애굽의 마술사들도 주문을 외워 똑같은 마술을 행했어요. 그들도 모두 자기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지요.

13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완고한 태도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죠.

첫 번째 재앙: 피

14-18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완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로 백성들을 놓아 주려 하지 않을 게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아침 일어나자 마자, 강가에 내려가 있는 바로에게 가거라. 전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가에 서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하나님-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어 광야에서 날 예배하게 하거라. 지금까지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행할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칠 것입니다. 그럼 물이 피로 변할 것이고, 나일강 안의 물고기들이 다 죽어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 애굽인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거라.”

¹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론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형님 지팡이를 들어 애굽의 모든 물들-강, 운하, 연못 등 모든 물들-위에 휘두르세요. 그럼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할 거예요. 애굽 전역이 피바다가 될 겁니다. 심지어 집안의 솔과 냄비에 담긴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할 거예요.’”

²⁰⁻²¹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물을 쳤지요. 그러자 나일강물 전체가 다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죽어 강물에서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나일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죠. 애굽 전역이 온통 피, 피, 피였어요.

²²⁻²⁵ 이에 애굽 마술사들도 주문을 외워가며 똑같이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죠. 바로는 서슴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궁으로 향했어요. 한편, 애굽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팔어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7 일이 지났어요.

8장

두 번째 재앙: 개구리

¹⁻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말하거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어 나를 예배하게 하거라. 네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내 경고컨대, 내가 개구리로 온 나라를 칠 것이다. 온 나일강이 개구리로 넘쳐나, 개구리들이 너희 집으로, 방으로, 침대로, 하인들 방으로, 사람들에게로, 오븐과 솥과 냄비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가 온 사방천지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모든 물건 위에, 그리고 모든 물건 속에 있게 될 것이다!'

⁵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전하거라. '형님 지팡이를 모든 강, 운하, 연못 위로 흔드세요. 그렇게 해서 애굽 땅의 개구리들을 다 불러내세요'라고 말이다."

⁶아론이 지팡이를 애굽의 물들을 향해 뻗자, 개구리떼가 올라와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⁷하지만 마술사들도 자기들 주문을 외워 똑같이 행했어요. 그들 역시 애굽에 개구리들을 만들어냈죠.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설상가상을 만드는 따라쟁이들...^^)

⁸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 좀 치워 주시오. 그럼 백성들을 놓아주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해 주겠소."

⁹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그럼 시간을 정하시죠. 언제 이 개구리들을 여기, 폐하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들 집에서 없애 드릴까요? 나일강에만 남겨놓고 다 없애 드리겠습니다."

¹⁰⁻¹¹"내일 그렇게 해 주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내일이 D-day입니다! 내일 폐하께서는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일이면 개구리들이 다 사라질 테니까요. 폐하와, 폐하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들 집에서 모든 개구리가 깨끗이 사라지고, 오직 나일강에만 남게 될 것입니다."

¹²⁻¹⁴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물러나온 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한테 불러들였던 개구리를 없애 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집안과 앞마당,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어 없어졌어요. 그들이 개구리 시체를 모으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온 나라가 개구리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했지요.

¹⁵하지만 바로는... 이제 한숨 좀 돌리게 되자, 다시 완고해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죠.

세 번째 재앙: 이

¹⁶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전하거라. ‘형님 지팡이로 먼지를 치세요. 그럼 먼지가 이로 변해 온 애굽 땅을 덮을 거예요’라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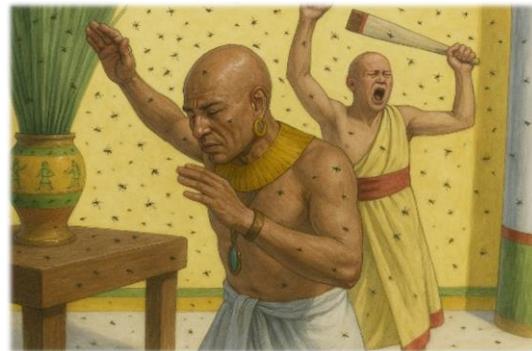
¹⁷ 모세가 아론에게 그대로 전하자, 아론이 자기 지팡이로 땅에 있는 먼지를 쳤어요. 그러자 먼지가 이로 변해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로 변해, 애굽 전역에 이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¹⁸ 마술사들도 주문을 외워 따라해 보려 했지만, 이번엔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마술이 안 통한 게 천만다행! 설상가상은 모면!^^) 온 사방천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곳에 이가 가득했어요.

¹⁹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죠.



네 번째 재앙: 파리

²⁰⁻²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강변에 내려갈 때 그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거라. ‘다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어 나를 예배하게 하거라. 만일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파리떼를 일으켜 너와 네 신하들, 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집에 가득하게 만들겠다. 애굽인들의 집과 그들 밭 밑의 땅도 온통 파리떼로 뒤덮일 것이다. 하지만 내 백성이 사는 성스러운 땅, 고센에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내가 이 땅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그렇게 명확히 구분할 것이다. 이 표적은 내일 일어날 것이다.’”

²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바로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했죠. 애굽 전역이 파리떼로 뒤덮여, 온 나라가 말도 아니었어요.

²⁵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어요.

“당장 나가시오! 가서 당신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오.
하지만 제사는 여기, 이 나라 안에서 드리시오.”

²⁶⁻²⁷ 모세가 말했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걸 보면, 애굽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만일 우리가 온 애굽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를 드려, 그들이 불쾌히 여긴다면, 애굽인들은 분명 우릴 죽일 겁니다. 그러니 3 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입니다.”

²⁸ 바로가 말했어요.

“좋소. 당신들이 광야로 가서 당신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리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오.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오.”

²⁹ 모세가 말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물러가자 마자 곧 하나님께 기도해, 내일이면 폐하와 폐하의 신하들과 온 백성에게서 파리떼가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게 보내준다는 결정을 또 번복해, 또 다시 우리를 우롱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³⁰⁻³²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한 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파리떼를 다 없애 주신 거예요. 그 결과 파리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죠. 하지만 바로는 또 다시 완고해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답니다.



9장

다섯 번째 재앙: 가축

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바로에게 전하거라.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놓아 주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그들을 놓아 주지 않고 계속 불잡고



있다면, 내 엄중히 경고컨대, 들에 있는 너희 가축들-말, 당나귀, 낙타, 소, 양-을 칠 것이다. 가축에게 무서운 질병을 일으킬 거란 말이다. 단, 이스라엘의 가축들과 애굽의 가축들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그어,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5 하나님께서는 시행 시기까지 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6-7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 결과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죠. 바로는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쪽)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지 뭐예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그는 백성들을 놓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 부스럼

8-11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난로에서 재 한 줌을 가져다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리거라. 그럼 그게 애굽 전역에 미세먼지가 되어 염증을 일으킬 것이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부스럼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난로에서 재 한 줌을 가져다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재가 사람과 동물들에게 부스럼을 일으켰어요. 마술사들은 부스럼 때문에 모세를 흉내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다른 애굽인들처럼 온 몸이 부스럼으로 덮여 꼼짝 못했거든요.



¹²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¹³⁻¹⁹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서 전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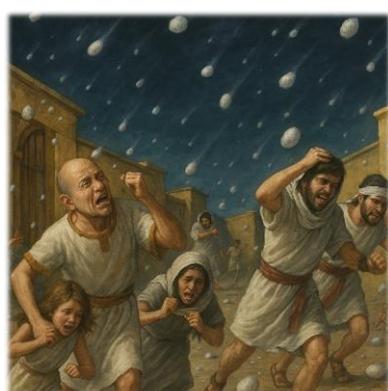
'하나님-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거라. 이번에는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 그리고 네 모든 백성을 내 모든 힘을 다해 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나 같은 신이 없다는 걸 너희 머리에 확실히 새겨 주마. 지금쯤이면 너도, '내가 너와 네 백성들을 치명적인 질병으로 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네 모든 걸 흔적 없이 다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텐데...? 그나마 내가 널 땅에 밭붙이고 살게 놔 둔 것은,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네가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내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지. 넌 여전히 내 백성의 피고름을 짜내 네 영화나 쫓으면서, 그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거라. 이번에는 내가 엄청난 우박-애굽 건국 이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대급 우박-을 내일 보내 주마. 사람들과 가축들-들에 나가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다 우박에 맞아 죽을 거다."

²⁰⁻²¹바로의 신하 중,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 하인들과 가축들을 최대한 빨리 집안으로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인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놔뒀죠.

²²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뻗거라. 그래서 온 애굽 땅, 사람이든, 가축이든, 농작물이든..., 애굽의 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거라."



²³⁻²⁶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하나님께서 우르릉 콩콩~ 천둥 소리, 번쩍번쩍~ 번개와 함께 후두두둑~ 우박을 보내셨어요. 참으로 애굽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우박이 온 애굽을 강타했어요. 둘에 있던 모든 것-사람이든, 가축이든, 농작물이든, 그 무엇이든-이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둘에 있던 나무들마저 초토화됐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만은 예외였어요. 고센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은 거예요.

27-28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소. 하나님이 옳으셨소.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둥과 우박을 못 견디겠소. 당신들을 보내주리다. 지금은 당신들이 이곳을 빨리 빠져나갈수록 좋단 생각밖에 안 드는구요.”

29-30 그러자 모세가 말했어요.

“제가 이 성읍을 벗어나자 마자, 하나님께 제 팔을 뻗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걸로 폐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폐하나 폐하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31-32(그 즈음은 애굽에 아마랑 보리가 거의 다 익어갈 무렵이었는데, 우박 때문에 농사를 다 망쳤어요. 하지만 밀이랑 스펠트밀(spelt, 가축 사료용 밀-역자 주)은 나중에 익는 품목이라 큰 피해가 없었지요.)

33 바로에게서 물려나온 모세는, 성읍을 떠나자 마자 하나님께 팔을 뻗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천둥과 우박이 한 순간에 그쳤지 뭐예요? 폭풍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잠잠해졌지요.

34-35 하지만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걸 보고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고집을 피운 거예요. 바로는 완전 쇠고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지요.

10장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1-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한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한테 이 모든 표적을 보여 주기 위함이란다. 또한 너희도 나중에 아들딸들, 손주들, 자손들한테 ‘내가 어떻게 애굽인들을 가지고 놀았는지, 그들이 고양이 앞의 쥐처럼 어떻게 꼼짝없이 당했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 얘기해 줌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거란다.”

3-6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하나님-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도대체 언제까지 고집 피우며 굴복하지 않으려는 거냐? 내 백성을 놓아 주어, 그들이 날 예배하게 하거라. 만일 내 백성을 놓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일 너희 나라에 메뚜기들을 데려올 테니 두고 보거라. 메뚜기들이 온 땅을 새까맣게(새파랗게?^^)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게다. 우박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농작물? 그거 다 메뚜기 떼가 먹어 치울 게다. 새로 난 새싹까지 싸그리 먹어 치울 게다. 메뚜기 떼가 네 왕궁도 침입할 게다. 네 신하들 집이며, 애굽의 모든 집에 가득할 게다. 이것은 유사이래, 네 조상들이 이 땅에 첫발을 디딘 후,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었던 재앙이 될 게다.'"



이 말을 마친 후, 모세는 발걸음을 돌려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어요.

⁷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어요.

"폐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릴 괴롭히게 놔두실 건가요? 이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애굽이 이제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⁸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어요.

"가시오, 가! 가서 당신들 하나님을 예배하란 말이오! 가만 있자..., 근데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요?"

⁹ 모세가 대답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데려갈 겁니다. 소떼, 양떼까지 전부 다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거든요."

¹⁰⁻¹¹ 그러자 바로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며 그대들을 보내 주긴 하겠소만..., 당신들 자녀들은 절대 못 보내줘! 보시오. 당신이 무슨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지, 속이 빤히 다 들여다 보인다고! 뻔한 수작 그만두고, 성인 남자들만 데려가 하나님을 예배하시오. 그게 그대가 그토록 원하던 거 아니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어요.

¹²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 쪽으로 손을 뻗어 메뚜기들에게 신호를 보내거라. 그래서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덮치게 하거라. 온 나라의 풀이란 풀은 다 먹어 치우게 하거라. 우박에 살아남은 것까지 남김없이 먹어 치우게 만들거라."

¹³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온종일 계속해서 바람이 불더니, 급기야 아침이 되자,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몰려왔어요.

¹⁴⁻¹⁵ 메뚜기 떼는 애굽 전역을 훑쓸었어요. 애굽 땅 전부를 뒤덮었죠. 온 애굽 땅에 메뚜기 떼가 두텁게 깔렸어요. 이러한 메뚜기 떼의 공격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땅이 메뚜기 떼로 온통 시커멓게 덮였어요. 메뚜기가 모든 걸-마지막 풀잎 하나, 마지막 열매 하나, 우박이 남겨놓은 마지막 농작물 하나까지-다 먹어 치웠어요. 앙상한 나뭇가지랑 황량한 들판만 남긴 채.... 온 애굽에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¹⁶⁻¹⁷ 그러자 바로가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어요.

“내가 그대들 하나님과 그대들에게 죄를 지었소. 마지막으로 내 죄를 한번만 더 용서해 주시오. 그대들 하나님께 날 이 죽음의 지옥에서 제발 좀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¹⁸⁻¹⁹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역방향 바람-아주 강력한 서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들을 다 홍해로 몰아넣으셨어요. 이로써 애굽 전역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²⁰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더 완고하게 만드셨어요.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

²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애굽 온 땅에 어두움이 내려오게 하거라.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흑암을 내려오게 하거라.”

²²⁻²³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깜깜한 흑암이 3 일간이나 애굽 땅을 뒤덮어 아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3 일간 꼼짝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예외였어요.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거든요.

²⁴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였어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오. 단, 소떼, 양떼는 놔두고 가시오. 아이들은 데려가도 좋소. 어서 가란 말이오!”

²⁵⁻²⁶ 하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저희는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데려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바쳐야 합니다. 우린 가축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데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에야, 어떤 걸 골라 바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땅한 절차입니다.”



²⁷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에, 바로는 가축까지 보내주는 건 동의하지 않았어요.

²⁸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어요.

“썩 물러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안 띄도록 조심하시오.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가는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²⁹ 모세가 말했어요.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시는 제 얼굴 볼 일이 없으실 겁니다.”

11 장

열 번째 재앙: 죽음

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와 애굽을 칠 거다. 그럼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거다.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면, 이제 너희는 애굽이랑 끝이야. 그들이 최대한 빨리 너희를 내보내려 할 거다.

²⁻³ 이제 네가 할 일은 이거란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각자 자기 이웃에게 금붙이, 은붙이를 달라고 말하라 하거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 주셨어요. 또한 모세에 대한 큰 존경심도 갖게 해 주셨죠. 바로의 신하들이건, 일반 애굽 백성이건 모두 다 모세를 공공연히, 아예 대놓고 존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⁴⁻⁷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자정에 내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장남들을 죽일 것이다. 왕좌에 앉아 있는 너 바로의 장남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남까지 모두 죽일 것이다. 짐승의 첫새끼도 다 죽일 것이다. 애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 것이다. 그런 곡소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그 누구한테도, 개조차 함부로 짓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나 하나님의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그어 놓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⁸그때 폐하의 신하들이 모두 내게 무릎을 꿇고 제발 떠나 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속히 떠나주세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 모두, 제발 다 떠나 달라고요!' 그때 제가 확실히 떠나드리지요."

모세는 분을 내며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어요.

⁹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네 말을 개무시하겠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나의 임재와, 내가 행하는 일의 표적들이, 애굽 땅에서 몇 배로 더 임팩트 있게 나타날 게다."

¹⁰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면전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바로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셔서, 이번에도 역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떠나는 걸 허락치 않았어요.

12장

1-10 모세와 아론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번 달이 너희의 정월 초하루(까치 까치 설날^^)가 될 거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전하거라. 이번 달 10 일에 각 가정의 가장은 어린양 한 마리씩 골라 놓도록 하거라. 한 집에 한 마리씩! 식구 수가 너무 적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식구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눠 먹거라.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미리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유월절 짐승은 양이나 염소 중에 한 살짜리 수컷으로 골라서 우리에 잘 가둬뒀다가, 1 월 14 일 해질 무렵에 잡거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같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양의 피를 조금 갖다가, 각자 양고기를 먹을 집 출입문 양쪽 세로 기둥과 위쪽 가로 기둥에 바르거라. 그날 밤, 고기를 먹을 때에는 불에 구워 먹거라. 고기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과 쓴 허브와 함께 먹거라. 고기를 날 걸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선 안 돼. 짐승 전체-머리, 다리, 내장 등-를 다 먹되, 반드시 불에 구워 먹도록 하거라. (육회나 수육은 안 됨, 직화구이만 허용!^^) 또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 놓지 말거라. 만일 남은 것이 있거든 다 불사르거라.



¹¹이제 먹는 방법을 알려 주마. (드레스코드^^)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샌들까지 완벽하게 신은 후,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하게 먹거라. 이날이 나 하나님의 유월절이기 때문이란다.

12-13 내가 그날 밤,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땅의 모든 첫째들을 다 칠 거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첫째를 다 쳐서 애굽 신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란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집에 바른 피가 보이면, 그 피를 표식으로 삼아 그 집은 지나갈 거란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재앙이 얼씬도 못할 거란다.

14-16 앞으로 이날을 너희 명절로 삼거라. 이날을 나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삼아,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항상 지키도록 하거라. 그리고 7 일간의 절기 기간 동안 발효시키지 않은 빵(무교병, 맷조뜨 matzot-맛이 좋을 것 같진 않지만 이름은 어쨌든 맷조뜨^^)을 먹거라. 명절 첫날, 집 안에 있는 이스트란 이스트는 다 없애거라. 명절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7 일간 이스트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축출될 거다. 특히 명절 첫날과 마지막날은 거룩한 날로 지정해, 일하지 말고 쉬거라. 하지만 밥 정도는 각자 알아서 해 먹어도 돼.

17-20 '발효되지 않은 빵'의 절기, 즉 무교절을 지키거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써 데리고 나온 바로 그날을 무교절로 기념하거라. 오고 오는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날을 항상 절기로 정해 지키거라. 첫째 달 14 일 저녁부터 21 저녁까지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거라. 그 7 일 동안은, 집안의 이스트란 이스트는 흔적도 없이 다 치우거라. 방문객이건, 동족이건, 누구든 발효된 빵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될 거다. 발효된 빵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거라. 맷조뜨만 먹어야 한다고!"



21-23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슬초 (Hyssop)

"가족 별로 어린양 한 마리씩 골라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린양의 피를 한 대접씩 받아, 우슬초 다발에 그 피를 묻혀 출입문 양쪽 세로기둥과 위쪽 가로다지에 바르십시오.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도 집밖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치실 테니까요. 하지만 출입문 세로기둥과 가로다지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시면 그 집은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에 죽음의 사자를 들여보내 여러분을 쳐서 멸망시키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24-27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절기를 계속 지키십시오.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집은 그냥 지나가심으로써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단다. 이건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란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28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신 대로 했어요. 전부 다 곧이곧대로 행했죠.



29 자정이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첫째란 첫째는 다 치셨어요. 왕좌에 앉은 바로의 장남부터,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장남까지 다 치신 거예요. 또 짐승의 첫새끼도 다 치셨어요.

30 그날 밤, 한밤중에 바로가 일어났어요.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다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 애굽 땅에 엄청난 곡소리가 들렸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31-32 그날 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 여기에서 썩 나가시오. 다시는 내 눈 앞에 얼씬도 마시오. 당신과 당신네 이스라엘 백성 모두! 가서 당신들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대로 양떼, 소떼도 다 데리고 가시오. 단, 날 축복하고 떠나시오."

33 애굽인들은 그들을 당장 쫓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군!'이라며 속히 떠나라고 등 떠밀었어요.

34-36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발효되지 않은 뺨반죽 덩어리를 그릇에 담아 걸옷으로 싸서 어깨에 들쳐 맸어요. 그들은 또 모세가 얘기한 대로, 애굽인들에게 금붙이, 은붙이, 의복 등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마음을 바꿔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건 뭐든 다 주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금고를 탈탈 털어 나온 거예요! 와우~!

37-39 부양가족을 제외하고도 약 60 만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라암셋에서 숙곳까지 이동했어요. 소떼, 양떼 등 가축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따라나선 하층민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빵반죽으로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웠어요.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납작한 빵을 구워 먹었던 거예요.



유월절

40-42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 년간 살았어요. 430 년이 다 찬 그날, 하나님의 전 군대가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던 날,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 주셨어요. 그날 이후,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 주셨던 밤-보살핌의 밤-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43-47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유월절 법규들이란다. 외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물론 돈을 주고 사서 할례를 행한 노예는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임시 방문객이나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유월절 고기는 꼭 집안에서 먹도록 하거라. 고기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선 안 돼. 그리고 유월절 어린양의 뼈는 부러뜨리지 말거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는 다 같이 이 유월절 식사를 꼭 하도록 하거라.

48 만일 너희와 함께 사는 이민자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그 이민자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먼저 할례를 받은 후,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과 똑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단다.

49 너희 동족이건 너희랑 섞여 사는 이민자건, 모두 다 유월절 법규를 똑같이 준수해야 한다.”

50-51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행했어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데리고 나오신 날이랍니다!

13장

¹⁻²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첫째는 다 내게 봉헌하거라. 이스라엘의 모태에서 처음 나오는 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내 거란다.”

³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애굽 땅, 그 노예생활에서 벗어난 날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이곳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발효된 빵은 일체 드시지 마십시오.

⁴⁻⁵여러분이 애굽을 떠난 달은 봄철인 아빕월(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 월-역자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우유와 꿀이 넘쳐나는 땅, 즉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의 땅에 들어가면, 매년 1 월에 다음과 같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⁶먼저 7 일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 7 일에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세요.

⁷첫 7 일간은 발효되지 않은 빵만 먹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발효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이스트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⁸그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란다.”

⁹⁻¹⁰이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기념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에 붙인 기념표나, 여러분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매년 정해진 날짜에 이 규례들을 잘 지키도록 하세요.

¹¹⁻¹³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한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셔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면, 모태에서 나오는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따로 구분해 놓으십시오. 가축 떼 중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당나귀 첫 새끼를 어린양으로 대체(redem)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린양으로 대체하지 않을 거라면 당나귀 첫 새끼의 목을 부러뜨리십시오.

¹³⁻¹⁶여러분 자녀들 중, 첫째 아들은 대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 땅, 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단다. 바로는 완고하게도 우릴 끝내 안 보내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째들, 사람의 첫 아들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가리지 않고 다 죽이셨지. 그래서 모태에서 처음 나오는 첫아들에 대한 대체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손에 감은 기념표나 이마 정중앙의 기념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¹⁷ 바로가 백성들을 놓아준 후, 하나님께서는 직통 코스인 블레셋 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졸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죠.

¹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길, 홍해쪽 우회로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처럼 행군하며 애굽을 떠났어요.

¹⁹ 그때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챙겨 나왔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오. 그때 내 유골도 꼭 가지고 가주시오'라고 엄숙하게 맹세를 시켰기 때문이었죠.

²⁰⁻²² 이스라엘 백성은 숙곳을 떠나,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진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행군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결코 백성들을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14장

구원의 이야기와 구원의 노래

1-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전하거라.

3-4 바로는 이렇게 생각할 게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쯤 길을 잃고 해매고 있겠지? 그렇게 광야에 갇히고 말았을 거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완고하게 했으니, 바로가 너희를 추격해 올 것이다. 그럼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애굽인들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어요.

5-7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졌어요. 그러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곧 마음이 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노예인력을 그냥 풀어 주다니...?”

바로는 전차들을 정비하고 군대를 소집했어요. 바로는 최강 전차 600 대와, 애굽의 다른 전차들, 그리고 전차를 모는 기병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갔어요.

8-9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조금도 미련 없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애굽인들은 바닷가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짝 추격, 바로의 전차들과 기병들, 그리고 모든 보병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에 이르렀어요.



10-12 바로가 점점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세상에!
애굽인들이 자기들을 향해 오고 있지 않겠어요?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릴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거요? 도대체 어쩌자고 우릴 애굽에서 끌고 온 거요?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진작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소? ‘우릴 여기 애굽에 가만 내버려 두시오. 우린 광야에서 독수리 밥이 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더 나오니까’라고 말이오.”

13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사역을 지켜보세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애굽인들을 잘 봐 두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들을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14 하나님의 이 전투에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아무 말 말고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15-16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거라. 그들에게 진군하라 명하거라. 네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뻗거라. 그리고 바다를 가르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거라.

17-18 그 사이, 난 애굽인들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만들겠다. 내가 바로와 그 전 군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사용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럼 애굽인들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거다."

19-20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번엔 위치를 바꾸어 백성을 뒤로 갔어요. 그리고 백성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백성을 뒤로 위치를 옮겨갔어요. 그렇게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구름이 가로막은 거예요. 한편, 구름의 한쪽은 너무 어두워 완전히 암흑이었고, 다른 한쪽은 환한 빛을 비쳤어요. (두 얼굴의 구름^^) 이렇게 해서 양 진영은 밤새도록 서로 일체 접근할 수 없었어요.

21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동쪽에서 밤새도록 불어온 돌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졌다구요!

22-25 이스라엘 백성은 양쪽 물벽 사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넜어요. 애굽인들이 전속력으로 바짝 추격,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쫓아 들어왔어요. 어느새 아침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애굽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의 전차들을 진흙에 빠뜨리셔서 전차 바퀴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셨어요.

애굽인들이 말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서, 애굽을 대항해 싸우고 계신다!" (그걸 이제야 알다니! 10 가지 재앙을 겪고도^^)

26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향해 손을 뻗거라. 그럼 물이 애굽인들과 그 전차들과 기병들 위로 덮칠 게다."

27-28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퉁이 틀 때, 애굽인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바닷물이 삽시간에 원상복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인들을 바다 한가운데 처넣으신 거예요.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 군대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바다에 다 빠뜨렸어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지요.



29-31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어요. 양쪽 물벽 사이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죽는 걸 보고, 애굽을 대항해 펼치신 하나님의 '막강파워'를 새삼 깨달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에 휩싸여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됐답니다.

15장

1-8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온 맘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네-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

하나님이 말과 기병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다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와우! 하나님은 나의 구원!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온 세상에 전하리.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멀리 이 소식 전하리.

하나님은 전사, 뱃속까지 순전하신 하나님!

바로의 전차들과 군대?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지.

바로의 그 잘난 장교들? 하나님께서 홍해에 빠뜨리셨지.

바닷물이 덮칠 때, 그들은 깊고 푸른 바다에 바위덩이처럼 빠졌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능력으로 빛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적군을 훑으셨습니다.

주님의 위엄 있는 능력으로, 오만한 원수들을 박살내시고,

뜨거운 진노로 그들을 바싹 태워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 한 방에 물이 높이 쌓였습니다.

출렁거리던 파도가 둑이 되었고, 거친 대양이 늪처럼 엉겨 불었습니다.

⁹ 적들이 말했지.

"쫓아가서 그들을 낚아채자. 전리품을 나눠 갖자.

그들을 삼켜 버리자. 검을 빼어 들자.

주먹 한 방으로 그들을 비틀거리게 만들자."

10-11 하지만 주님께서 힘껏 숨을 내쉬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이 납덩이처럼 거대한 물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오, 하나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주님과 견줄 이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권능에 대해, 그 누가 힘겨루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¹²⁻¹³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대속하신 백성들은,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거룩한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¹⁴⁻¹⁸ 이 얘길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블레셋인이 몸부림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오, 에돔의 우두머리들도, 모압의 대장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 패닉에 빠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휘청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휘두르시니, 그들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도록 하셔서,

주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도록 하셔서,

주님의 기업이 있는 산으로 그들을 데려다 심으셨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곳, 주님이 만드신 곳,

오, 주님, 주님이 손수 지으신 주님의 성소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소서!"

¹⁹ 맞아요, 바로의 말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은 바닷속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로 물을 다시 덮으셨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속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죠.

²⁰⁻²¹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나서자, 모든 여인들도 따라서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춤어요. 미리암이 그들을 인도해 함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노래하자, 이 얼마나 압도적인 승리인가?

하나님께서 말과 기병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시다니!"

광야를 통과하다.

22-24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출발해 수르 광야로 갔어요. 그렇게 광야길을 3 일간 가는 동안, 어디에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쓴 물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쓰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설마 우리더러 이 쓴 물을 마시라는 거요?"

25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지목하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물 속에 던지자 쓴 물이 단 물로 바뀌었어요.

26 마라는 하나님께서 법규와 절차들을 세워주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앞으로 백성들에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실지,

기준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애굽인들에게 일으켰던 모든 질병들로 너희를 칠 일이 없을 게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 하나님입니다."

27 그 후 그들은 12 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12 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가에 진을 쳤답니다.





16장

1-3 애굽을 떠난 후, 둘째 달 15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출발해 신 광야로 이동했어요. 신 광야는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릴 애굽에서 곱게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광야로 끌고 나와 굶어 죽게 하시는 거요? 애굽에서는 양고기 찌개도 먹고, 갖가지 빵도 먹을 수 있었는데?” (애굽의 ‘할머니 뼈해장국’과 ‘성십당’이 그리워!^^)

4-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빵을 비처럼 내려주마. 매일 사람들이 나가서 그날의 배급분을 거둘 수 있도록 말야. 나는 그들이 내 가르침을 따르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시험을 치르려 해. 제 6 일에 그들이 거둔 빵으로 요리할 때, 그게 평소의 두 배 분량이 될 게다.”

6-7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은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유심히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한테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한 거라구요!”

8 모세가 말했어요.

“오늘 저녁식사로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실 분도 하나님께서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빵을 배불리 먹여 주실 분도 하나님께서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불평소리를 유심히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껏 한 거라곤... 우리한테 불평한 게 다였죠! 하지만 그건 우리한테 불평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불평한 거라는 거죠!”

9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평소리를 들으셨습니다’라고요.”

10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광야의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11-1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단다. 이제 그들에게 전하거라.

‘해질 무렵,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테고, 새벽에는 빵을 배불리 먹게 될 게다. 그럼 너희는 내가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게다.’”



13-15 그날 저녁 메추라기가 날아들어 이스라엘 진영을 새까맣게 뒤덮었어요. 다음날 아침, 이슬이 온 진영 위로 내리더니, 이슬이 겉힐 무렵, 광야 바닥에 신비로운 고운 가루, 서리처럼 고운 가루가 땅 위에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서로 말했어요.
“만후(*man-hu*, 만나, 이게 뭐야)?”

그들은 그게 뭔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15-16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각 충분한 양을 거두거라. 1 인분은 약 2 리터 정도 될 것이다. (1 인분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막사에 있는 식구들까지 충분히 먹을 양을 거두거라.’”

17-18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모았지요. 하지만 각자 모은 양을 달아 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각자 딱 필요한 만큼만 모았던 거예요.

19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놓지 마세요.”

20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일부를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해 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벌레가 꾀이고 악취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어요.

21-22 그들은 매일 아침, 각자 필요한 양만큼 만나를 거둬 들였어요. (매일 새벽 배송되는 로켓프레시!^^) 해가 떠서 뜨거워지면 만나는 녹아버렸어요. 제 6 일에는 두 배로, 1 인당 약 4 리터씩 모았어요.

23-24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다. 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이란 말이지. 그러니 요리할 게 있으면 오늘 해 놓거라. 굽든, 끓이든 오늘 다 해 놓거라. 그리고 남는 만나는 내일 아침까지 따로 보관해 두거라.’”

그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남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해 놨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만나에 벌레가 꾀이거나 악취가 나지 않았어요.

25-26 모세가 말했어요.

“이제 만나를 드십시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땅에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6 일간 매일 만나를 거두세요. 단, 제 7 일은 안식일이라 땅에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²⁷ 제 7 일에, 몇몇 사람들이 또 말을 안 듣고 만나를 모으러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²⁸⁻²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내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걸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제 6 일에 빵을 두 배로 준 거란 걸 모르겠냐고? 제 7 일에는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말야.”

³⁰ 그래서 사람들이 제 7 일째에는 일을 안 하고 쉬었어요.

³¹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이게 뭐야?)’라고 불렀어요.

만나의 생김새는 고수씨처럼 희끄무레했고, 맛은 꿀 바른 크래커 같았어요.



³²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 오멜(약 2 리터) 크기의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후세대들에게 전해주거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후, 광야에서 너희에게 공급해준 빵을 그렇게 후세대들에게 보여 주란 말이다.’”

³³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어요.



“항아리를 갖다가 만나 2리터를 채워 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두고, 후세대들을 위해 잘 보관하세요.” (방부처리 필수^^)

³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론이 행했어요. 아론은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보존할 수 있도록 놔 뒀어요.

³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착할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 년간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접경지대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은 거예요.

³⁶ 참고로 고대 계량법으로, 1 오멜은 0.1 에바랍니다. (1 오멜= 0.1 에바=약 2 리터)

17장

1-2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 광야를 출발, 한걸음한걸음 이동해 가다가 마침내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마실 물을 내 놓으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날 왜 이리도 힘들게 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요?”

3 백성들은 너무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당신은 왜 우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랑 우리 자식들이랑 우리 가축들까지 다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요?”

4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절 죽일 기세입니다!”

5-6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명을 데리고 백성을 앞으로 가거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희 앞에서, 호렙에 있는 바위에 나타날 테니, 넌 그 바위를 치거라. 그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게다.”

6-7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모세는 그곳을 맛사(테스트 장소)와 므리바(다툼)라고 이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했기 때문이에요.

8-9 그러던 중 아말렉이 르비딤까지 쫓아 내려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몇 사람을 선발해 함께 아말렉과 싸우게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동산 꼭대기에 서 있겠네.”

10-13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나가 아말렉과 싸웠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동산 꼭대기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지 뭐예요? 하지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러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 모세를 앉혔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게

모세는 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두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죠.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잘 적어 여호수아에게 주거라. 여호수아가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말야. 내가 이 땅에서 아말렉의 흔적조차 말끔히 없애 버렸다는 걸 말야.” (이것이 원조 난중일기^^)



15-16 모세는 제단을 세우고, 제단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불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두 절하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18장

1-4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랑 모세의 아들 둘을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기력기 아빠 모세^^) 두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나그네)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내가 타향살이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한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가 날 죽이려 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날 도와 살려 주셨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5-6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로 왔어요. 이드로는 도착하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전갈을 보냈어요.

“자네 장인인 내가 자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네.”

7-8 모세는 마중을 나가, 장인어른께 절을 하고 입을 맞쳤어요.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은 후, 같이 막사로 들어갔어요. 모세는 장인어른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돋기 위해 바로와 애굽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간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번 그 어려움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등등을 얘기했어요.

9-11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선하신 일들에 대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대들을 애굽과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구먼! 이제 나는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깨달았네.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만하게 굴던 이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까.”

12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燔祭 Whole-Burnt-Offering)와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아론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찾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의 장인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13-14 다음날, 모세는 재판석에 앉아 재판을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서서 자기들 차례를 기다렸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모세의 장인이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왜 이 모든 일을 자네 혼자서 다 하고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자네 앞에 세워두다니...?”

15-16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볼 게 있을 때마다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걸핏하면 절 찾아온다구요. 그들이 이웃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해석해 주지요.”

17-23 모세의 장인이 말했어요.

“그러지 말게. 이러다간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쳐 나가떨어질 거야. 이건 자네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야. 도저히 자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내 말 잘 들어보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 일하실 방법을 알려 주겠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건 좋아. 하지만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자네의 일은 백성들에게 법규와 지침을 가르치는 걸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등등 말일세. 그러니 백성들을 잘 관찰해서, 그 중에 유능한 사람들-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청렴결백한 사람들-을 선발해 1,000 명, 100 명, 50 명, 그리고 10 명 단위의 리더들로 세우게나.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늘상 일어나는 분쟁을 재판하는 업무는 그들에게 맡기게.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려운 안건은 자네한테 가져오고, 일상적인 안건들은 스스로 처리할 걸세. 그렇게 그들이 자네 업무를 분담한다면, 자네 짐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들을 뭐든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테고, 백성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걸세.” (기업, 아니 국가 컨설팅^^)

²⁴⁻²⁷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경청해 그대로 따랐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해 1,000 명, 100 명, 50 명, 그리고 10 명 단위의 리더들로 세웠지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 사이에 수시로 발생하는 분쟁들을 재판했어요. 어려운 사안들은 모세에게 가지고 왔지만, 사소한 일상사는 자신들이 직접 재판했죠. 모세가 장인과 작별한 후, 모세의 장인은 자기의 고국,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19장

시내산

¹⁻² 애굽을 떠난 지 3 개월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들어갔어요. 르비딤에서 시작된 길을 따라가다가 시내 광야에 도착, 거기에 진을 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바라보고 진을 친 거예요.

³⁻⁶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야곱 집안에게 말하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란 말이다.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데리고 나왔는지도 다 봤어. 이제 너희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게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 특히 너희는 내게 아주 특별하단다.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자 거룩한 나라니까....'"

⁷ 모세가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⁸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실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답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했어요.

⁹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준비하거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 네게 내려가서 너와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그걸 듣고 너를 완전히 신뢰하게 될 게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어요.

¹⁰⁻¹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앞으로 2 일간 거룩한 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전하거라. 옷을 빨아 입고 3 일째 되는 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라고 말야. 왜냐하면 제 3 일에 내가

시내산으로 내려가 모든 백성에게 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거거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거라.

'경고! 입산금지! 산자락조차 만지면 안 됨! 산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임. 그 죽은 사람만 만져도, 그 역시 선 채로 돌로 변할 것임. 아니면 화살로 쏘아 죽이도록!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 죽일 것!'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산에 올라와도 안전하다는 신호로 여기거라."

¹⁴⁻¹⁵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고 전했어요. 백성들은 옷을 깨끗이 빨았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3 일간 준비하십시오. 여인과 잠자리도 가져선 안 되오."

¹⁶ 3 일째 되는 날 새벽, 큰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짙은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고막이 찢어질 듯 나팔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러자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¹⁷ 모세가 진영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백성들은 산기슭에 모두 정렬해 서 있었어요.

¹⁸⁻²⁰ 하나님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마치 용광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 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나팔 소리도 점점 더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부르시자, 모세가 올라갔어요.

²¹⁻²²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죽고 싶지 않거든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거라. 그리고 제사장들 역시 거룩한 만남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전하거라. 내가 백성들을 향해 돌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말야."

²³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한테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산기슭을 뺑 둘러 경계선을 쳐, 이 거룩한 산을 존중하거라.'

²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려가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거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경계선을 뚫고 나 하나님한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재차 이르거라. 그래야 내가 백성들을 향해 돌발행위를 하지 않을 테니."

²⁵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20장

¹⁻²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 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노예살이에서 이끌고 나왔지.

³ 다른 신은 없어. 오직 나뿐이지.

⁴⁻⁶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이라도, 날아다니는 것이든, 걸어다니는 것이든, 헤엄쳐다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는 안 돼.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겨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특별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란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모의 죄로 인해 그 3 대손, 아니 4 대손까지 벌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 천 대 후손들한테까지 변함없이 의리를 지킬 게다.

⁷ 나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거나 희롱하지 말거라. 나는 내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걸 못 참으니까.

⁸⁻¹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거라. 6 일간은 응당 할 일을 하거라. 하지만 제 7 일은 나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이니 어떤 일도 하지 말거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외국인 나그네까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나 하나님도 6 일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든 후, 제 7 일에 쉬었기 때문이지. 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고, 거룩한 날로 구분했거든.

¹²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거라. 그러면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게다.

¹³ 살인하지 말거라.

¹⁴ 간음하지 말거라.

¹⁵ 도둑질하지 말거라.

¹⁶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거라.

¹⁷ 너희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황소나, 당나귀나, 그 어느 것도 탐내지 말거라. 너희 이웃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란 말야."

¹⁸⁻¹⁹ 백성들 모두 천둥과 번개, 나팔소리에, 그리고 연기나는 산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 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시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우리가 다 죽고 말 테니까요."

²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테스트하시고, 여러분 속에 깊은 경외심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해 주시려고 오신 거니까요.”

²¹ 모세가 하나님께 계신 짙은 구름에 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²²⁻²⁶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한테 얘기하는 걸 직접 다 들었지. 그러니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지 말거라. 내 제단은 흙으로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온전한 번제(燔祭 Whole-Burnt-Offerings)나, 화목제(和睦祭 Peace-Offerings)로 양이나 소를 드리거라. 내가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도록 허락한 곳이면 어디든, 내가 직접 그곳에 임재해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마. 만일 돌로 내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지 않은 돌을 쓰거라. 돌에 연장을 대는 순간, 제단이 세속화되기 때문이지. 또한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오지 말거라. 그러다간 너희 알몸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21장

¹ “네가 백성을 앞에 세울 율법은 다음과 같단다.

²⁻⁶ ‘너희가 히브리인 노예를 사왔을 때엔, 6년간 노예로 쓴 후, 제7년째에는 아무 조건 없이 풀어 주거라. 노예가 너희 집에 올 때 독신이었으면, 독신으로 내보내 주거라. 하지만 결혼한 상태로 왔다면, 아내와 함께 그를 내보내거라. 만일에 주인이 노예를 장가 보내줘서, 아들딸까지 낳았다면, 노예가 나갈 땐 자기 아내와 아들딸들은 주인 집에 놔두고, 본인 혼자만 떠나도 돼. 하지만 노예가 ‘저는 주인님뿐 아니라, 제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주인은 그를 나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평생 노예로 살겠다’는 표식으로,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거라.

⁷⁻¹¹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몸종으로 팔았을 경우, 그 여종은 6년이 지나도 다른 종들처럼 자유인이 될 수 없단다. 주인이 여종을 싫어해, 여종 가족이 그녀를 도로 사들일 수밖에 없다 해도, 여종 주인은 다른 외국인에게 여종을 팔 권리가 없어. 왜냐하면 주인이 여종에 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지.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그 여종을 아내로 준다면, 주인은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야 해. 설사 주인 아들이 새 장가를 들더라도, 여종은 여전히 식사, 의복을 제공받고, 부부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어. 만약 주인 아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여종은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떠날 수 있단다.

12-14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때려 죽였다면, 사형에 처하도록 해. 하지만 죽일 의도가 없는 과실치사일 경우를 대비, 나 하나님의 법규로, 살인자가 망명할 수 있는 곳을 따로 정해 주마. 반면 만일 사전에 용의주도하고도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면, 설사 살인자가 내 제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끌어내 사형에 처하거라.

15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때렸다면, 사형에 처하거라.

16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납치했다면, 그 사람을 팔아 넘겼든, 자기 소유로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하거라.

17 어떤 사람이 부모를 저주하거든, 사형에 처하거라.

18-19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먹이나 돌로 쳐서 상해를 입혔다 하자. 그런데 맞은 사람이 죽지는 않고 앓아 누워 있다가, 나중에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회복기간 동안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해. 그럴 경우에 한해 혐의를 벗을 수 있어.

20-21 어떤 노예 주인이 남녀 노예를 몽둥이로 때려, 노예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노예의 원한을 갚아줘야 해. 하지만 그 노예가 하루이틀 생존해 있다면 노예의 원한을 갚아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지.

22-25 싸움이 일어나 임산부가 맞았는데, 다른 데는 다친 곳 없이 유산만 했다면, 때린 사람은 임산부의 남편이 요구하는 걸 다 배상해줄 책임이 있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상해도 입었다면 목숨에는 목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화상에는 화상, 상처에는 상처, 명에는 명으로 갚아 주거라.

26-27 어떤 노예 주인이 남녀 노예를 때려 눈이 멀게 했을 경우, 노예 주인은 다친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줘야 해. 노예 주인이 남녀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을 경우에도, 다친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줘야 하고.

28-32 어떤 소가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다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이도록 하거라. 그 소의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일반적으로 소 주인은 혐의가 없지만, 원래 그 소가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었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소가 사람을 죽인 거라면, 소도 돌로 쳐 죽이고, 소 주인도 사형에 처하거라. 하지만 희생자의 목숨값에 대해 합의가 성립될 경우, 소 주인은 사형당하는 대신 합의금을 지불해도 돼. 어떤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 소에게 받혔을 때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거라. 그러나 남녀 노예가

소에게 받혔을 경우에는, 소 주인이 노예 주인에게 은 30 세겔을 배상하고, 뿐만 아니라 소는 돌로 쳐 죽이거라.

33-34 만일 어떤 사람이 우물이나 새로 판 구덩이를 덮지 않고 그대로 둬, 소나 당나귀가 거기 빠졌다면, 구덩이 주인이 가축 주인에게 적절한 값을 배상하도록 해. 단, 죽은 가축은 구덩이 주인이 가질 수 있어.

35-36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둘이서 그 값을 나눠 갖고, 죽은 소 역시 둘이 나눠 갖도록 하거라. 하지만 소가 원래 받는 벼룩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걸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 주인은 자기의 다른 소로 배상해야 해. 단, 죽은 소는 본인이 가질 수 있단다.

22장

1-3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친 후 도살하거나 팔았다면, 그 도둑은 소 한 마리를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를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해. 어떤 집에 도둑이 침입할 때, 도둑을 세게 때려 죽여도,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해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아. (정당방위^^) 하지만 날이 밝은 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3-4 도둑은 훔친 물건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해야 해. 단,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훔친 소나 당나귀나 양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두 배로 배상하도록 해.

5 만일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자기 가축에게 풀을 먹이다가 방심해,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간 경우, 가축 주인은 자기 들이나 포도원에서 나는 최상품의 소산물로 배상해야 해.

6 만일 불이 나서 곡물 다발이나, 심겨진 곡식이나, 혹은 밭 전체를 태운 경우, 불을 낸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

7-8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이웃집에서 그걸 도난 당했다면, 도둑을 불잡았을 경우, 도둑이 2 배로 배상해야 해. 하지만 도둑을 불잡지 못했을 경우, 물건을 보관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 받아야 해.

⁹ 훔친 물건의 경우, 그것이 소든, 당나귀든, 양이든, 의복이든, 그 무엇이든 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양측 모두 판사 앞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해.

¹⁰⁻¹³ 만일 어떤 사람이 당나귀나 소나 양이나 혹은 기타 가축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을 경우, 목격자가 없다면, 보관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자신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밝혀야 해. 가축 주인은 그 맹세를 믿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그러나 가축을 보관했던 사람이 훔친 것으로 판명되면, 가축 주인에게 배상해야 해. 보관해 주던 가축이 야수에게 찢겨 죽었을 경우, 찢긴 가축의 시체를 증거물로 제시하면 따로 배상할 필요가 없어.

¹⁴⁻¹⁵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가축 주인의 부재 시, 가축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다면 빌린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해. 그러나 가축 주인이 현장에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 가축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로 손실액을 대신하면 돼. (가축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고, 따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역자 주)

¹⁶⁻¹⁷ 만일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는 결혼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처녀와 결혼해야 해.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도, 결혼지참금은 지불해야 해.

¹⁸ 무당은 살려 두지 말거라.

¹⁹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거라.

²⁰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거라.

²¹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거라. 너희도 한때는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²²⁻²⁴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여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테니....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칼로 너희를 처단해, 너희 아내는 과부로, 너희 자녀는 고아로 만들어 버릴 게다.

²⁵ 너희가 만일 내 백성, 가난하여 생계가 막연한 내 백성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빚독촉을 심하게 하거나 높은 이자로 늑탈하지 말거라.

²⁶⁻²⁷ 만일 이웃의 외투를 보관하고 있다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거라. 네 이웃이 단별신사여서 덮고 잘 게 그 옷 밖에 없다면 어떡하겠니? 네 이웃이 춥다고 내게 부르짖으면, 난 개입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동정심이 많거든.....

²⁸ 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거라. 또 너희 지도자도 욕하지 말고!

²⁹⁻³⁰ 너희의 포도주통이 가득 찼는데도 인색하게 굴지 말거라.

너희 장남은 내게 바치거라. 소나 양도 마찬가지야. 생후 7 일간은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한 후, 내게 가져오거라.

³¹ 날 위해 거룩하게 살도록 하렴.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 고기는 먹지 말거라. 그런 건 개한테나 던져줘 버려.

23장

1-3 악의적인 험담을 퍼뜨리지 말거라. (악플러들, 잘 들어!^^) 악한 사람과 엮여서 남을 중상모략하는 증언을 하지 말거라. 여론에 휩쓸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증하지 말거라. 또한 분쟁이 났을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도 마.

4-5 너희 원수의 소나 당나귀가 길을 잊은 걸 보거든, 주인에게 데려다 주거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당나귀가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진 걸 보면, ('쩝통이다' 하면서^^) 못 본 척 지나가지 말고 가서 당나귀 일으키는 걸 도와 주렴.

6 가난한 사람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7 허위고발(무고誣告)을 하지 말고, 선량하고 무죄인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말거라. 악한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8 놈물을 받지 말거라. 놈물은 공정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법이지.

9 외국인 노동자를 압제하지 말거라. 너희도 애굽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 봤으니, 그게 어떤 건지 잘 알잖니?

10-11 6년간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되, 제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여, 거기에서 나는 걸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 줘. 또 빈민들이 남긴 건 야생동물들이 먹게 해 주고! 포도 농장이든 올리브 농장이든 다 그렇게 하거라.

12 6 일간만 일하고, 제 7일째에는 소나 당나귀나 종이나 일꾼이나 다 쉬게 해 주거라.

13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걸 다 잘 들어야 해. 다른 우상에겐 아예 눈길도 주지 말고,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거라.

14 1년에 3회는 날 위한 절기를 지키거라.

¹⁵내가 전에 명령한 대로, 아빕월(유대인 종교력 1 월-역자 주)에 봄철 무교병의 절기(무교절)를 7 일간 지키며 무교병을 먹거라. 아빕월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달이니까! 그때 나한테 빈손으로 오지 말길!

¹⁶너희가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는 여름철,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거라.

1년간의 수확을 거두는 가을철에도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거라.

¹⁷1년에 3회, 모든 남자는 너희 주 하나님 앞에 나오거라.

¹⁸희생의 피를 제물로 드릴 때는 이스트가 들어있는 것과 함께 드리지 마.

절기 때, 짐승 제물에서 나온 기름은 이튿날까지 놔두지 말고.

¹⁹첫 수확물은 극상품으로 너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거라.

짐승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거라.

²⁰⁻²⁴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거라. 내가 너희 앞에 내 천사를 보내 너희 여정을 보호해 주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해 주마. 내 천사에게 집중하고, 순종하거라. 내 천사를 거역하지 말거라. 내 천사는 내 권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자이니, 너희가 반역하는 걸 참지 않을 게다. 하지만 너희가 그에게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걸 다 지키면, 내가 너희의 적에게 적이 되어 주고, 너희랑 싸우는 자들과 싸워 줄게. 내 천사가 너희보다 앞서 가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게다. 내가 그 땅에서 그들을 싹 쓸어내 줄 테니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이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내고, 그들이 섬기는 남근 모양의 우상들도 박살내 버릴 거니까.

²⁵⁻²⁶하지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희 음식과 물에 복을 내려 줄게. 너희 가운데서 질병도 없애 주고. 너희 땅에서 유산하거나 불임증에 걸린 여인이 하나도 없게 해 주마. 내 기어코 너희가 풍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줄게.

²⁷너희가 뒤쫓는 사람들에게 너희보다 앞서 '두려움'을 보내어,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뜨려 주마. 그럼 너희는 적이 내빼는 뒷모습을 보게 되겠지?

²⁸⁻³¹내가 너희보다 앞서 '낙심'을 보내, 너희 길을 막고 있는 히위족, 가나안족, 헷족을 쫓아내 줄게. 하지만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진 않을 게다. 그래야 그 땅에 잡초가 무성하거나 야수가 판치지 못할 테니까. 그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들을 몰아내, 그동안 너희가 그곳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너희 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줄게. 너희 국경선을 홍해부터 지중해까지, 광야부터 유브라데강까지로 넓혀 줄게.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너희한테 넘겨 줄게. 너희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도록!

³²⁻³³ 그들과 거래하지도, 그들의 우상과 타협하지도 말거라. 그들이 그 땅에서 너희랑 같이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해. 안 그러면 그들은 분명 너희를 꼬셔서 자기네 우상들을 섬겨 죄를 짓게 만들 테니까. 조심해! 그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란다!"

24장

¹⁻²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 명은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나아오거라.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경배하게 하고, 모세 너만 나한테 가까이 오도록 해. 나머지는 가까이 오면 안 돼. 백성들은 일체 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구."

³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모든 규칙들과 법규들-을 다 전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⁴⁻⁶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적었어요. (적자생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하는 12 개의 돌기둥 제단을 세웠어요. 또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지시해, 소의 제물로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제물의 피 절반은 대접에 담아 두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⁷ 그 다음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무렴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⁸ 모세는 나머지 피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이미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열서!^^)

⁹⁻¹¹ 그리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 명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맑고 투명한 하늘색 사파이어 같은 걸로 포장된 길 위에 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둥들인 리더들을 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죠. (МО니 체결 기념만찬^^)

¹²⁻¹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높은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날 기다리거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교훈과 계명의 돌판(tables of stone, 태블릿의 원조^^)을 줄게."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자기 부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¹⁴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남아 있을 테니,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말하세요.”

¹⁵⁻¹⁷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은 구름에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내려, 6 일간 구름에 덮여 있었어요. 제 7 일째,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바라보니, 산꼭대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았어요.

¹⁸ 모세는 산에 올라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모세는 40 일 주야 동안 그 산에 있었어요.

25장

산 위에서의 지시: 예물

¹⁻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바칠 예물을 따로 구분해 놓으라고 전하거라. 그리고 누구든 예물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면 그 예물을 다 받거라. 특별히 이런 품목의 예물을 받으면 좋겠구나. 금, 은, 구리, 파란색과 자주색과 빨간색 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무두질 된 양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나무, 등잔기름, 향품 및 관유에 들어갈 향료, 에봇과 흉패에 넣을 줄마노 등 보석류. 이 예물들로 날 위한 성소를 짓거라. 그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마. 내가 네게 준 디자인대로 성소를 건축하거라. 성소와 그 안의 모든 집기류를 내가 지시한 대로 만들거라.



증거궤

¹⁰⁻¹⁵ 우선 아카시아나무로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거라. 가로 114cm x 세로 69cm x 깊이 69cm 의 크기로 만들거라. 순금으로 증거궤의 안팎을 도금하고 모든 테두리도 금으로 감싸거라. 금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증거궤의 발 네 개에 볼이되, 두 개는 한쪽 면에, 두 개는 다른 면에 볼이거라. 아카시아나무로 채 둘을 만들어 금으로 도금한 후, 증거궤에 붙인 금고리 사이에 끼워 넣어 증거궤를 옮길 때 사용하도록 하거라. 채는 고리 안에 늘 끼워 둔 채, 절대 빼내지 말거라.



¹⁶ 증거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의 돌판을 넣어 두거라.

¹⁷ 그리고 증거궤의 뚜껑, 즉 속죄의 덮개(=시은좌=속죄소)는 순금으로 가로 114cm x 세로 69cm로 만들거라.

¹⁸⁻²² 금을 망치로 두드려 만들어 두 날개를 가진 천사상을 만들되, 속죄의 덮개 양쪽 끝에 각각, 즉 천사상 하나는 한쪽 끝에, 다른 하나는 반대쪽 끝에 붙여 넣거라. 두 천사상은 속죄의 덮개와 이어서 하나로 만들거라.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의 덮개를 감싸 안도록 하되, 방향은 서로 마주 보게, 얼굴은 아래를 향하도록 만들거라. 증거궤 안에는 내가 네게 줄 증거의 돌판을 넣고, 속죄의 덮개로 증거궤를 덮거라. 내가 약속된 시간에 거기, 속죄의 덮개 위, 천사상 사이에서 너와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계명을 말해 주마.

떡상

²³⁻²⁸ 그 다음, 아카시아나무로 떡상을 하나 만들거라. 가로 91cm x 세로 46cm x 높이 69cm 크기로 만들거라. 떡상을 금으로 도금하고, 모든 테두리도 금으로 감싸거라. 떡상 4 면에는 손너비 높이의 턱을 만들고, 그 턱도 금으로 도금하거라. 또 고리 네 개를 금으로 만들어 떡상의 윗면과 평행으로 네 다리에 붙이거라. 네 개의 고리는 떡상을 옮길 때 쓸 채를 끼워 넣는 용도란다. 아카시아나무로 채 두 개를 만들어 금으로 도금해 운반 시 사용하거라.

²⁹ 제사드릴 때 액체를 담는 용도로 접시, 대접, 항아리와 주전자를 만들어라. 모두 순금으로.

³⁰ 내 앞에 있는 떡상에는 항상 신선한 진설병을 놓아 두거라.



떡상

size	Handbreadth Wide	Inch
S	7.0-8.0cm	2.75-3.15
M	8.0-8.5cm	3.15-3.35
L	8.5- 10cm	3.35-3.94

• Measurement methods



손 너비

등잔대

³¹⁻³⁶ 순금을 망치로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거라. 줄기와 가지, 등잔, 꽃받침과 꽃잎을 다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거라. 가지 6 개를 만들되, 한쪽에 3 개, 다른 한쪽에 3 개가 올라오도록 하고, 꽃받침, 꽃잎과 함께 아몬드 꽃송이 모양으로 등잔 3 개를 만들어 한쪽 줄기에 붙이고, 다른 쪽 줄기에도 똑같이 등잔 3 개씩을 전체 6 개의 줄기에 붙여 만들거라.



아몬드 꽃



등잔대

등잔대의 가운데 줄기 위에는 꽃받침, 꽃잎과 함께 아몬드 모양의 등잔 4 개를 만들어, 3 쌍의 줄기가 가운데 줄기에서 뻗어 나오도록 만들거라. 등잔대는 순금을 망치로 두드려 하나로 이어서 만들거라.
37-38 7 개의 등잔에서 불빛이 앞으로 쏟아져 나와 떡상을 비추도록 배열해 놓거라. 등잔가위와 불똥접시도 순금으로 만들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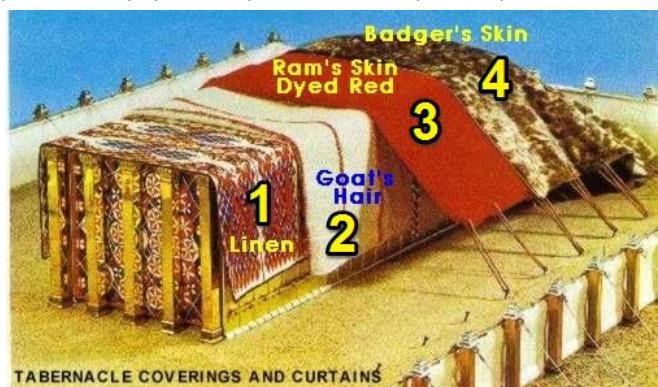
39-40 34kg 의 순금 덩어리로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을 만들거라. 산 위에서 네게 일러준 디자인대로 모든 걸 만들거라.

26장

성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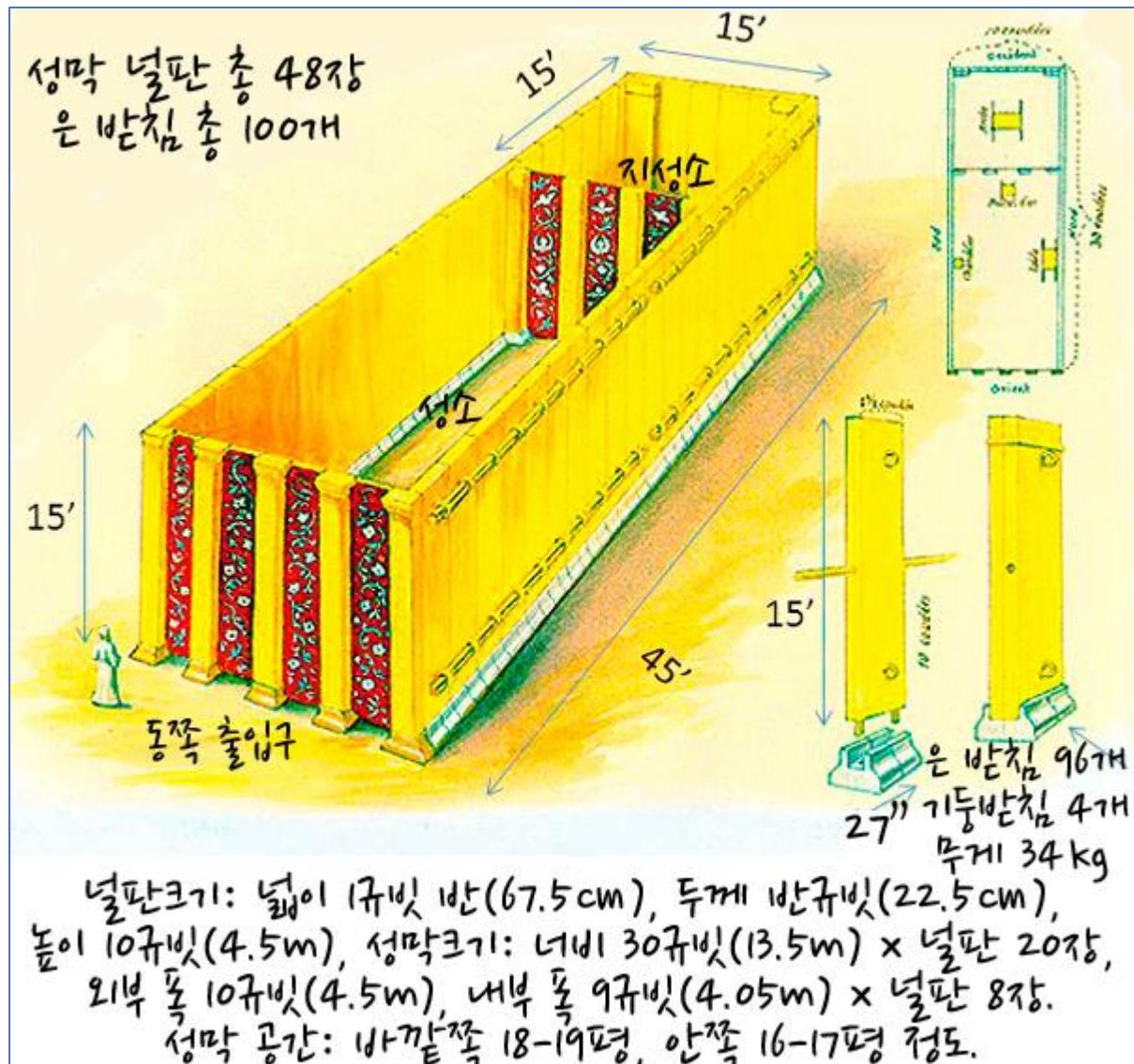
1-6 천 열 폭으로 성막을 덮을 천을 만들되, 가늘게 꼬 모시실과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로 천사-그룹-을 수놓아 짜서 만들되, 솜씨 좋은 장인에게 만들게 하거라. 10 장의 천은 각각 가로 14m x 세로 182cm 크기로 만들거라. 천은 5 장씩 연결해 두 세트로 만들어 각 세트의 바깥 끝에 파란 실로 각각 50 개의 고리를 달거라. 그리고 금으로 걸쇠 50 개를 만들어 성막을 덮을 천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걸쇠를 이용해 두 세트의 천을 서로 연결하거라.

7-11 그 다음, 염소털로 천을 짜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되, 전체 11 장의 천으로 만들거라. 각 천은 가로 13.7m x 세로 182cm의 크기로 만들거라. 5 장의 천을 연결해 한 세트를 만들고, 나머지 6 장의 천을 연결해 별도의 한 세트를 만들거라. 그리고 여섯 번째 천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 올리거라. 각 세트의 끝에 고리 50 개를 만들고, 구리로 걸쇠 50 개를 만든 후, 걸쇠를 고리에 끼워 넣어 두 세트의 천막을 하나로 연결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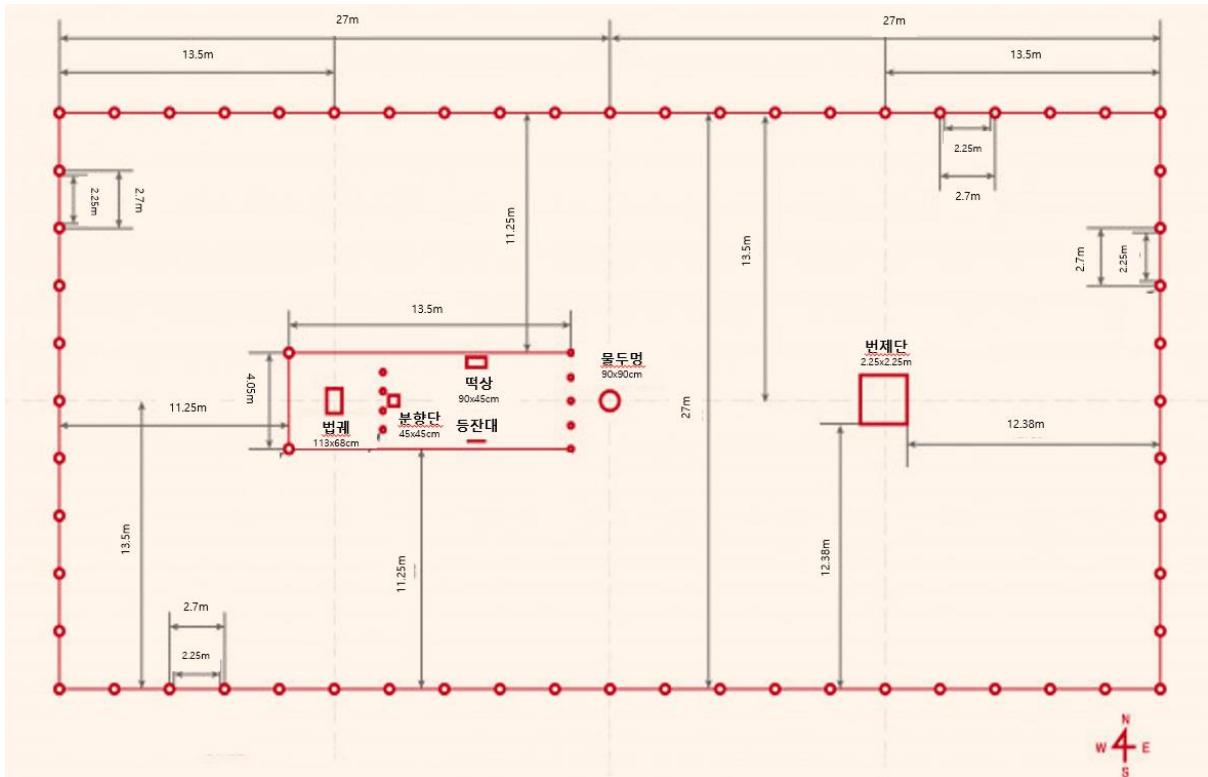


12-14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 있는 천막 반 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거라. 천막 너비에서 양쪽으로 46cm 씩 여분을 뒤 성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 성막을 덮거라. 그리고 성막 덮개 두 종류를 더 만들거라. 하나는 무두질한 양가죽을 빨갛게 염색해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가죽으로 만들거라.

15-25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거라. 각 널빤지는 가로 4.6m x 세로 69cm로 만들되, 널빤지를 세울 수 있도록 (밑면에) 촉꽂이 두 개씩을 박거라. 성막 널빤지는 다음과 같이 모두 다 똑같이 만들거라. 성막 남쪽 벽면으로 세울 널빤지 20 장을 만들고, 20 장의 널빤지 밑면에 두 개씩 박은 촉꽂이의 받침을 은으로 40 개 만들거라. 성막의 북쪽 벽면도 똑같이 만들거라. 또 성막 뒤쪽, 즉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 6 장을 만들고, 뒤쪽의 양쪽 코너에 세울 널빤지를 추가로 2 장 더 만들거라. 코너에 세울 이 널빤지 2 장은 아래에서 위까지 두 겹으로 세우되, 고리 한 개로 연결해 딱 맞추거라. 즉 8 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밑면에 촉꽂이 받침이 두 개씩 필요하니, 은 받침은 모두 16 개를 만들면 된단다.



자료 출처: 임봉삼, 성막의 의미 <https://sindavid761.tistory.com/m/32>



<성막의 구조 및 크기> (단위: 규빗, 1 규빗=45cm)

- 성막뜰: 가로 54m x 세로 27m x 높이 2.3m
- 회막(성소+지성소): 가로 13.5m x 세로 4.5m x 높이 4.5m
- 성소: 가로 9m x 세로 4.5m x 높이 4.5m
- 지성소: 가로 4.5m x 세로 4.5m x 높이 4.5m

26-30 그리고 이번엔 아카시아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되, 성막 한쪽(남쪽) 벽면 널빤지에 5 개, 다른 한쪽(북쪽) 벽면 널빤지에 5 개, 뒤쪽(서쪽) 벽면 널빤지에 5 개씩 만들면 돼. 널빤지들의 중간 지점에 끼울 가로다지는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로지르도록 만들거라. 널빤지마다 금으로 도금하고, 가로다지를 펠 고리도 금으로 만들거라. 또 가로다지도 금으로 도금하거라. 그 다음 내가 이 산에서 네게 보여준 도면대로 성막을 세우거라.

31-35 솜씨 좋은 장인을 시켜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끈 모시실로 커튼을 짜되, 그 위에 천사-그룹-을 수놓거라. 아카시아나무로 커튼기둥 4 개를 만들어, 그 위에 커튼을 드리우거라. 커튼기둥은 모두 금으로 도금한 후, 금고리를 달고, 이 기둥들의 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그 위에 기둥을 세우거라. 그리고 커튼을 금고리에 걸어 늘어뜨려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 커튼 <https://sherrycook.wordpress.com/>

구분하거라. 그 다음 속죄의 덮개로 증거궤를 덮어 지성소 안에 들여 놓거라. 커튼 바깥쪽에는 떡상과 등잔대를 놓되, 등잔대는 성막의 남쪽에, 떡상은 등잔대의 맞은편 북쪽에 놓거라.

³⁶⁻³⁷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성막문으로 쓸 막을 만들거라. 아카시아나무로 기둥 5 개를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고, 금고리를 만들어 붙여, 그 기둥에 이 막(성막문)을 드리우거라. 그리고 구리를 부어 기둥받침 5 개를 만들거라.

27장

번제단

¹⁻⁸아카시아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거라. 가로 2.3m x 세로 2.3m x 높이 1.4m 크기로 만들거라.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이어 하나가 되게 만든 후, 구리로 도금을 하거라. 또 재를 담는 양동이와 삼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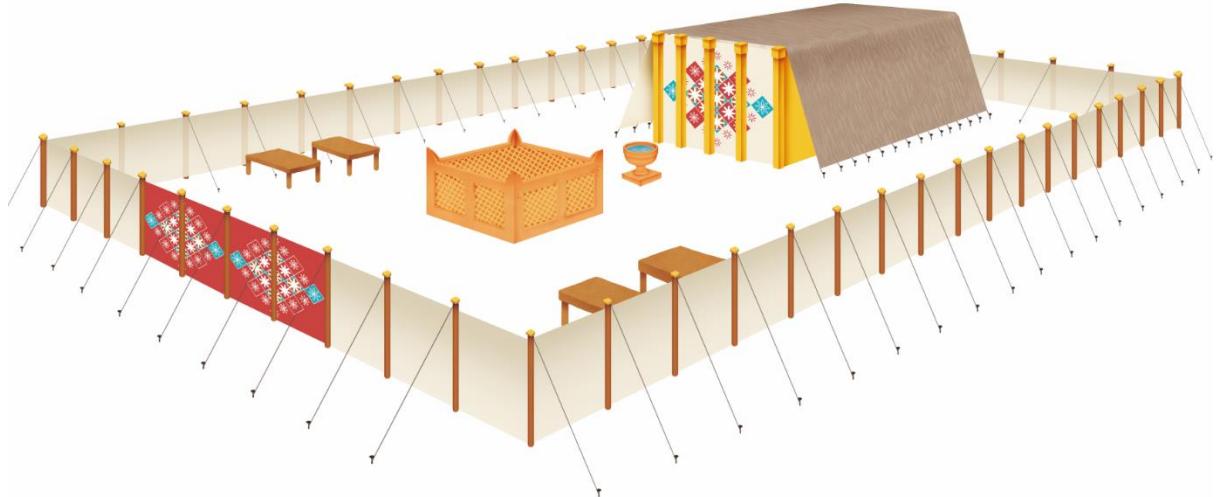
그릇을 만들거라. 이 모든 기구는 구리로 만들거라. 그리고 그물 모양의 석쇠를 구리로 만들고, 구리로 고리넷을 만들어 석쇠 네 모퉁이에 붙이거라. 번제단 중간 높이에 턱을 만들어 석쇠를 거기에 걸쳐 놓거라.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구리로 도금한 후, 번제단 양 옆의 고리에 끼워 넣어 번제단을 운반할 때 사용하거라. 제단은 널빤지로 만들되, 속은 빈 채로 두거라.

성막뜰

⁹⁻¹¹성막뜰을 만들거라. 남쪽 뜰의 길이는 45.7m 이다. 성막뜰을 두를 담장을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만들거라. 담장을 칠 기둥 20 개와 기둥받침 20 개를 구리로 만들고, 기둥에 달 고리와 담장을 칠 걸쇠는 은으로 만들거라. 북쪽 담장도 남쪽과 똑같이 만들거라.

¹²⁻¹⁹서쪽 뜰의 길이는 22.9m 로 만들고, 기둥 10 개와 기둥받침 10 개를 만들거라. 맞은편 동쪽 뜰의 길이도 22.9m 로 만들되, 동쪽 정문을 중심으로 한쪽에 기둥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 6.9m 길이의 담장을 치거라. 다른 한쪽도 대칭으로 똑같이 만들거라. 동쪽 뜰의 정문에 칠 막은 솜씨 좋은 장인이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짜서 만들게 하거라. 길이는 9.1m로 만들고, 기둥받침 4개 위에 기둥 4개를 설치하여 거기에 정문 막을 치거라. 담장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를 달고 은 걸쇠로 담장을 달거라. 단, 기둥받침은 구리로 만들거라. 성막뜰은 가로 45.7m x 세로 22.9m



× 높이 2.3m로 만들고, 담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천으로 두르되, 담장 받침은 구리로 만들거라. 모든 성막용 기구들, 즉 성막 촉꽂이와 울타리 촉꽂이 등은 모두 구리로 만들거라.

자료 출처: http://picok.co.kr/picok/image/view.php?it_id=m15390381569813

20-21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고 깨끗한 올리브유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그것으로 등잔불을 항상 켜 두거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등잔불을 회막 내부, 증거궤를 가린 커튼 바깥쪽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켜 두거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단다.

28장

제사장 예복

1-5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네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불러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거라. 또한 영광과 미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네 형 아론에게 입히거라. 내가 이 일에 은사를 준 솜씨 좋은 장인들을 불러다가, 아론의 예복을 만들라고 하거라. 내가 날 위한 제사장으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울 거란다. 장인들이 만들 예복은 다음과 같단다. 흉패, 에봇, 가운, 뜨개질로 짠 긴 옷, 두건, 그리고 허리띠.

이렇게 장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 입을 예복을 만들게 될 게다. 제사장 예복의 재료로는 금색,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는 모시실이 필요하단다.

에봇

6-14 에봇은 솜씨 좋은 장인이 금색 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그리고 가늘게 꼬 모시실로 만들도록 해. (에봇=벨트 딸린 긴 조끼^^) 에봇의 양쪽에 어깨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서, 조일 수 있게 하거라.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금색,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꼬 모시실로 만들어 에봇에 이어 붙이거라. 그 다음, 두 개의 줄마노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되, 보석 한 개에 여섯 명의 이름을, 다른 보석 한 개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출생 순서대로 새기거라. 보석 세공가는 인장반지를 새기는 방법으로 보석 두 개에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거라. 그리고 그 보석 두 개에 금테를 물리거라. 이 보석 두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것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거라.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념물로서 어깨에 이 이름들을 메고 다니거라. 그리고 금고리 세트를 만들거라. 또한 순금을 줄처럼 꼬아서 금사슬 두 개를 만들어 금사슬을 금고리에 부착하거라.



자료 출처: <http://gyusikjung.blogspot.com/2019/02/39.html>

흉파

15-20 또한 판결흉파를 만들되, 솜씨 좋은 장인들을 시켜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금색,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꼬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게 하거라. 가로 23cm x 세로 23c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으로 만들어, 그 위에 진귀한 보석들을 다음과 같이 4 줄로 박아 넣거라.

첫째 줄: 홍옥수, 토파즈, 에메랄드,
둘째 줄: 루비, 싸파이어, 크리스탈,

셋째 줄: 풍신자석, 마노, 자수정,

넷째 줄: 녹주석, 줄마노, 벽옥 (참고로 각 줄의 보석들은 오른쪽부터 왼쪽 순서임-역자 주)

20-21 또 이 보석들에 금테를 물리거라. 이 12 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12 개의 이름에 상응하는 것으로, 12 지파의 인장반지를 새기듯, 보석마다 각각의 이름을 새기거라.

22-28 그 다음 흉패를 매달 수 있도록 순금으로 금사슬을 꼬아 만들거라. 그리고 흉패에 걸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흉패 양쪽 끝에 달아 조일 수 있게 하거라. 흉패 끝에 달린 고리에 두 줄의 금사슬을 매고, 그 금사슬 두 줄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 멜빵에 달린 금테 두 개에 매달거라. 그 다음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그것을

흉패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거라. 그리고 또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장식된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거라. 흉패 고리를 파란 줄로 에봇고리에 매되, 장식된 띠 조금 위에다 매어,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거라.

29-30 아론이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 새겨진 판결흉패를 기념물로 가슴에 달고 정기적으로 들어가게 될 게다. 판결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거라.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림과 둠밈이 아론의 가슴 위에 있도록 하거라. 이렇게 아론은 판결흉패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거라.

파란색 가운(겉옷)

31-35 에봇 위에 입을 가운은 전체를 다 파란색으로 만들거라. 가운 중심에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깃으로 덧대어 찢어지지 않게 하거라. 또한 가운 밑단에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거라. 가운 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교대로 달거라.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이 가운을 입도록 하거라.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죽지 않을 게다.



자료 출처: <http://www.kcmusa.net>

두건, 흰색 긴 옷, 속바지

36-38 또 순금으로 명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새기거라. 이 명패는 파란색 실로 만든 끈으로 매어 두건 앞쪽에 달거라. 즉 명패가 아론의 이마에 오게 하거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무슨 예물이건 예물을 잘못 드려 지은 죄를 아론이 담당할 게다. 아론이 이 명패를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만, 나 하나님�이 예물을 받을 게다.



명패 (여호와께 성결!)

39-41 또 가는 모시실로 짜서 흰색 긴 옷과 제사장용 두건을 만들거라. 예복의 허리띠는 수를 놓는 사람이 만들게 하거라.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흰색 긴 옷, 허리띠, 두건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거라. 네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힌 후,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하고 거룩하게 구별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거라.

42-43 또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속바지를 모시로 만들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오거나, 제사 드리러 성소의 번제단에 나아올 때마다 이 속바지를 입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 죽게 될 게다. 이것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란다.

29장

제사장 위임식

1-4 다음은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위임식 절차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건강하고 흠 없는 것으로 고르거라.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빵, 기름을 섞어 만든 케익과 기름 바른 웨하스를 만들되 이스트는 넣지 말거라. 이것들을 모두 한 바구니에 넣어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오거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리고 와서 물로 씻기거라.

5-9 그 다음 제사장 예복을 가져다 흰색 긴 옷과 에봇 밑에 입는 가운과 에봇과 흉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수놓은 허리띠를 에봇 위에 매거라. 또 아론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그 두건 위에 명패를 붙이거라. 그 다음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거라. 그 다음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긴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띠게 하거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머리에 두건을 씌우거라.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영원한 거란다.



9-14 다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는 절차란다.

수소를 회막 앞으로 데려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회막문에서 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수소를 잡거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 네 손가락으로 번제단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쓸거라. 내장을 덮은 기름 전부랑 간과 콩팥에 붙은 기름은 떼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 태우거라. 하지만 수소의 살코기와 가죽과 뚱은 진영 밖에서 불 태우거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Absolution-Offering)란다.

15-18 그 다음 숫양 한 마리를 데려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숫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숫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리거라. 그리고 숫양의 각을 뜯 후,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뜯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거라. 이렇게 숫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태워 바치거라. 이것이 바로 나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는 번제(燔祭 Whole-Burnt-Offerings)로서, 나 하나님한테 기분 좋은 향기이며, 불살라 드리는 제사란다.

19-21 그 다음 다시 다른 숫양 한 마리를 데려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숫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숫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아론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거라. 남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리거라. 또 번제단 위에 있는 피에 관유를 섞어, 아론과 그의 옷 위에,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리거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게다.

22-23 숫양에서 기름과 기름진 꼬리, 내장을 덮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콩팥을 덮은 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 내거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용 숫양이란다.

또 나 하나님 앞에 놓인 빵 바구니에서 빵 한 덩어리, 기름 케잌 한 개, 웨하스 한 개를 집어 오거라.

²⁴⁻²⁵ 이것들을 전부 아론과 아론 아들들 손에 담아 줘, 나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 드리게 하거라. 그 다음 그들 손에서 그것을 받아 번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태우거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은 향기로, 나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이란다.

²⁶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용 숫양에서 가슴 부위를 떼어, 요제로, 나 하나님 앞에서 흔든 후, 그건 네 뒷으로 갖거라.

²⁷⁻²⁸ 요제용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거라. 이것은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위임식을 위한 숫양의 부위들이란다. 아론과 아론 아들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예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로 이 제물들을 정기적으로 드려야 해.

²⁹⁻³⁰ 아론의 거룩한 예복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 예복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게 하거라. 아론의 아들 중,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사람은 7 일간 이 예복을 입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사역하도록 하거라.

³¹⁻³⁴ 또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린 숫양의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거라. 아론과 아론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이 숫양의 삶은 살코기(수육^^)와 바구니에 든 빵을 먹거라. 이 예물들로 그들이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되고, 성별되었으니, 오직 아론과 아론 아들들만 이것을 먹을 수 있단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걸 먹어선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위임식용 숫양의 고기나 빵이 다음날까지 남아 있다면 불태우고 먹지 말거라.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란다.

³⁵⁻³⁷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절차는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7 일간 정확히 행하거라.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수소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거라. 번제단 위에 수소를 드려서, 번제단을 성결케 하고, 번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거라. 이렇게 7 일간 번제단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거라. 그러면 번제단이 온전히 거룩해져, 번제단에 닿는 것이 다 거룩하게 될 게다.

³⁸⁻⁴¹ 번제단에 드려야 할 것은 다음과 같아. 한 살 난 숫양 두 마리를 날마다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거라. 첫 번째 숫양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 1.9 리터, 처음 짠 올리브유(엑스트라 버진^^) 0.9 리터, 포도주 0.9 리터를 전제(奠祭 Drink-Offering)로 같이 드리거라. 두 번째 숫양도 아침과 똑같이 저녁에, 소제(素祭 Grain-Offering), 전제와 함께 드려서 나 하나님한테 기분 좋은 향기가 되도록 예물로 드리거라.

⁴²⁻⁴⁶ 이것이 앞으로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 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 드릴 온전한 번제란다. 그곳이 바로 내가 너희를 만날 곳이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 장소지.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게다. 그곳은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이 되었단다. 내가 회막과 번제단을 거룩하게 만들 게다. 또한 아론과 아론 아들들도 거룩하게 만들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할 게다. 내가 그곳으로 이사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자기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게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30장

분향단

¹⁻⁵ 또 아카시아나무로 분향단을 만들거라. 가로 46cm x 세로 46cm x 높이 91cm 의 크기로 만들되, 뿔도 이어 붙여 한 덩어리로 만들거라. 분향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모서리마다 금테를 두르거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양쪽 모서리의 금테 아래 붙여 분향단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또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도금하거라.



분향단 (자료 출처: SOSTV)

⁶⁻¹⁰ 분향단은 증거궤를 가리는 커튼 앞, 즉 내가 너를 만나는 곳, 증거궤를 덮는 속죄의 덮개(시은좌) 앞에 놓거라.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매일 아침 등잔을 닦을 때마다, 그리고 저녁때 등불 켜 준비를 할 때마다 향을 피우거라. 이렇게 향불은 너희 자손대대로 계속 나 하나님 앞에 늘 피워져 있어야 해. 하지만 분향단 위에서 거룩하지 않은 다른 향을 피우거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소제물), 또는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태워서는 안 돼.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을 정결케 하거라. 속죄제물의 피로 매년 속죄의식을 갖되, 이 속죄의식은 자손대대로 계속 행하거라. 이것이 나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란다.”

속죄의 세금

11-16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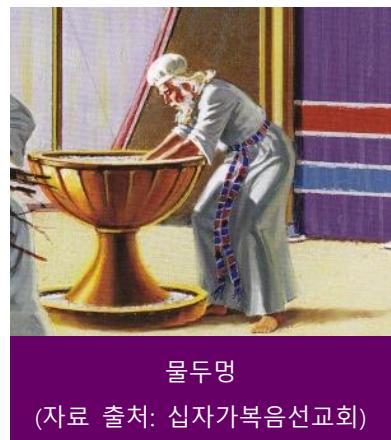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받는 모든 백성은 자기 목숨값으로 속죄의 세금을 내게 바치거라. 그래야 인구조사 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게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로 등록되는 사람은 누구나 내게 0.5 세겔(성소의 표준 세겔, 1 세겔=0.2 온스=6g, ∴ 0.5 세겔=3g)을 바치거라.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만 20 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다 내게 이 예물을 바치거라.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바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이보다 덜 바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낸 속죄의 세금은 회막문에 놓아두어, 회막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거라. 이렇게 내게 경의를 표하며 속죄의 세금을 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너희 목숨에 대해 속죄를 해 줄 게다.

물두명(세숫대야)

17-2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구리로 물두명과 받침을 만들어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담아 두거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거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 다가가거나, 나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릴 때 물두명에서 손발을 먼저 씻어야 죽지 않을 게다. 이것은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자손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란다."



물두명

(자료 출처: 십자가복음선교회)

관유(거룩하게 성별하는 기름)

22-2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최상품의 향료들: 몰약 5.6kg, 그리고 그 절반의 양의 향기로운 계피 2.8kg, 향초 줄기 2.8kg, 캐시아 계피 5.6kg, (모두 성소의 표준 중량 기준), 올리브유 3.8 리터를 준비해 솜씨 좋은 향수 장인을 시켜 관유를 만들거라.

26-29 그리고 회막과 증거궤, 떡상과 그 모든 부속기구,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기구, 분향단 및 번제단과 그 모든 부속 기구, 물두명과 물두명 받침에 이 관유를 뿐거라. 그렇게 이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기물들을 만지는 사람마다 다 거룩해질 수 있게 하거라.

30-33 그 다음,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이 기름은 너희 자손대대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에만 사용하거라. 일반인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 또 이 기름의 제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기름을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이 기름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거라. 누구든 이와 똑같은 기름을 만들거나, 일반인에게 이 기름을 바르면 민족 공동체에서 바로 추방될 게다.'"

거룩한 향품

34-38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향료들-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모두 같은 양을 섞어(1:1:1:1) 향기로운 향품을 만들거라. 향수 장인의 기술로, 소금을 넣어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거라. 그리고 그중 일부를 가루로 빻아 내가 너를 만날 곳, 즉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거라. 이거야 말로 최고로 거룩한 게 될 게다. 이 향품을 만드는 제조법으로 사적으로 쓸 향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거라. 개인 용도로 똑같이 향품을 만드는 사람은 민족 공동체에서 바로 추방될 게야.

31장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내가 유다 지파, 휄의 손자이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순수 택했단다. (낙하산 인사^^) 내가 그를 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그가 금, 은, 구리로 온갖 작품들을 디자인하고, 창작하고, 보석을 컷팅하고, 셋팅하며, 목재를 조각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주었단다. 브살렐은 만능 장인이야!

6-11 그게 다가 아니란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브살렐에게 붙여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지. 그리고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것들-회막, 증거궤, 속죄의 덮개, 회막의 모든 기구들, 떡상과 그 부속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도구들, 분향단, 번제단과 그 부속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공식 예복들, 제사장 아론과 아론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을 거룩한 예복들, 관유, 성소의 향품 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줬단다. 그들이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모든 걸 다 만들 게다."

안식일

12-17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거라. 너희가 자손대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표로 삼으마.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하니까.... 누구든 안식일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거라.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민족공동체에서 추방하거라. 6 일간은 일하고, 제 7 일째는 안식일로 지키거라. 온전히 쉬면서 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거라.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필히 사형에 처하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며, 자자손손 살아있는 언약으로 안식일을 지키거라.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변치 않는 증표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6 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제 7 일째는 일을 멈추고 푹~ 쉬었기 때문이지.”

18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모세에게 증거의 돌판 두 개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이었어요.

32장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시오!”

1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우릴 인도할 신이라도 만들든가... 뭐라도 좀 해 보시오. 우릴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그 모세란 작자한테 뭔 일이 생긴 건지 모르잖소?”

2-4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아내, 아들딸들 귀에서 금 귀걸이를 빼서 내게 가지고 오시오.”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

그러자 모두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 귀에서 금 귀걸이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왔지요. 아론은 그들에게 받은 금을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오, 이스라엘이여!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우리의 신이다!”



⁵ 아론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 송아지를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뭐지? 이 혼합종교는? "")

⁶ 다음날 아침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온전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후,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파티를 벌였어요. 정말 광란의 파티였죠!

⁷-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가거라! 빨리 내려가 보라고! 네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들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내가 지시한 길에서 삽시간에 등을 돌렸다고! 백성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송배하다니! 송아지한테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아!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다니!”

⁹-¹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세상에...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한지.... 내 속에서 열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구나. 이 백성들을 불살라 버리고 말 테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너로부터 큰 나라를 만들어 주마.”

¹¹-¹³ 모세는 ‘자기의 하나님’을 달래 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주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십니까? 주님께서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인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죽이려는 거였군! 이 땅에서 그들을 썩 쓸어 없애려고 그랬던 거야!’라고 애굽인들이 떠들어대도록 놔두실 겁니까? 제발 화 좀 푸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부디 주님께서 언약하신 주님의 종들-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네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마. 그리고 이 땅도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¹⁴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백성들을 당장 멸해 없애 버리겠다’고 하셨던 걸 없었던 일로 해 주셨어요. (마음 약하신 하나님^^)

¹⁵-¹⁶ 모세는 증거의 돌판 두개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돌판엔 양면, 즉 앞면과 뒷면에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자원절약을 위한 양면인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들어

글을 새겨 주신 거예요.



¹⁷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시끄럽게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진영에서 전쟁소리가 들립니다!”

¹⁸ 하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저것은 승전가가 아니야. 패배의 노래도 아니고.... 백성들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소리라고!"

19-20 과연 그랬어요. 모세는 진영에 다가가,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과 송아지 형상을 보고, 화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돌판 두 개를 산자락에 내리쳐 산산조각 내고 말았죠.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에 녹이고,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21 그리고 아론에게 말했어요.

"세상에! 백성들이 형님한테 도대체 어쨌길래 형님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신 겁니까?"

22-23 그러자 아론이 말했어요.

"에고, 부디 노를 거두시게. 그대도 이 백성들이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악을 도모하는 인간들인지 잘 알잖는가? 백성들이 글쎄 나한테 '우릴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그 모세란 작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잖소?'라고 하지 뭔가?

24 그래서 내가 그랬지. '누구 금 갖고 있는 사람 없소?'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 패물을 내게 주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그걸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지 뭔가?"

25-26 모세는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분별없이 날뛰는 걸 목격했어요. 아론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거예요. 모세가 진영 입구에 자리를 잡고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러자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27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며 너희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라.'"

28 그러자 레위인들이 모세의 명을 따랐어요. 이렇게 해서 그날 3 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29 모세가 말했어요.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소. 아들들과 형제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축복하셨소."

30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여러분 죄를 씻어 달라고 빌어 보겠습니다."

31-32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 말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죄를 말이에요! 자기들을 인도할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지 뭐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야 좋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 주세요.”

³³⁻³⁴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한테 죄 지은 자들 이름만 내 책에서 지울 테다. 하지만 당장은 그냥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거라. 봐, 내 천사가 네 앞서 가고 있잖니? 하지만 언젠가 내가 결산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을 게다.”

³⁵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아론이 만든 송아지로 인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33장

¹⁻³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출발하거라. 네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과 길을 나서거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그 땅을 향해 가거라. 내가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을 몰아내 줄게. 그 땅은 우유와 꿀이 넘쳐나는 땅이야. 하지만 난 너희랑 함께 가지 않을 게다. 너희가 너무 완고하고 고집 센 백성이라, 내가 같이 갔다가는 가는 길에 너희를 멸망시키고 말 것 같구나.”

⁴백성들은 이 가혹한 평결을 듣고, 급우울해져 축 쳐졌어요. 그날 몸에 액세서리를 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의 드레스 코드: 쌩얼에 추리닝 차림^^)

⁵⁻⁶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너희는 고집 센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랑 잠시라도 함께 했다가는, 너희를 다 멸해버리고 말 것 같구나. 그러니 너희에게 따로 지시를 내릴 때까지 몸에서 액세서리를 다 떼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모든 액세서리를 다 떼낸 거예요.

⁷⁻¹⁰모세는 늘 백성들의 진영 밖, 좀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 텐트를 ‘회막(會幕 Tent of Meeting)’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영 밖 회막으로 갔어요. 일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가면, 온 백성이 일어서서 다 주목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막사 입구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구름기둥이 회막문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온 백성이 자기 막사입구에서 회막문에 내려온 구름기둥을 주목한 채, 엎드려 경배했어요.

11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웃끼리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듯 말예요. 한편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와도, 모세의 부관이었던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12-13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인도하거라!’라고 하셨지만, 저와 함께 누굴 보내실 건지는 안 알려 주셨잖아요. 그저 제게 ‘내가 널 잘 안단다.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라고만 하셨죠. 제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특별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저도 좀 끼워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 책임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14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게.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 주마.” (협상의 달인 모세^^)

15-16 모세가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이 여정을 취소하세요. 저희를 인도하시지 않겠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저랑 주님의 백성이랑 함께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희랑 같이 가실 건가요, 말 건가요? 저희랑 같이 안 가신다면, 우리가, 저랑 주님 백성이, 온 세계 민족 중에서 특별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확인 도장^^)

17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네가 말한 대로 나도 함께 가마. 내가 널 잘 알고, 또 넌 내게 특별하니까. 난 네 이름도 잘 아니까.” (작전성공!^^)

18 모세가 말했어요.

“부디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보너스까지 요구^^)

19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다. 네 바로 앞으로, 나의 선함이 지나가게 해 주마. 내가 바로 네 앞에서 내 이름-하나님-을 외치마. 난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싶은 사람한테 친절을 베푼단다.”

20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게다. 날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21-2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봐, 내가 바로 여기 있단다. 넌 이 바위 위에 서 있거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널 바위 틈에 넣고 내 손으로 덮어 주마. 그 다음 내가 손을 떼면 넌 내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진 못할 게다.”

34장

1-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돌판 두 개를 원래 것과 똑같이 잘라 만들거라. 네가 깨뜨린 돌판에 새겨져 있던 문구들을 원래대로 똑같이 새겨 넣어 주마. 내일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정상에서 나랑 만나자꾸나. (이것이 진정한 정상회담^^) 그 누구도 데려와서는 안 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에 얼씬도 말거라. 양이나 소 한 마리도 산 언저리에서 풀을 뜯어서는 안 된다구.”

4-7 모세는 돌판 두 개를 원래랑 똑같이 잘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 옆에 서셔서 당신의 이름-하나님-을 외치셨어요.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당신 이름을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끊임없이 참아 주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는 하나님, 자손만대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며, 사악함과 반역과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결코 아니지. 나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묻거든. 3~4 대까지 말야.”

8-9 그 즉시,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어요.

“오, 주님, 절 조금이라도 예쁘게 봐주신다면 저희랑 동행해 주세요. 제발요, 주님, 고집 센 이 백성과 함께, 저희와 함께 가 주세요. 저희의 사악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10-12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마.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이 땅 어디에서도,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들을 행할 거란다. 그럼 너랑 같이 살고 있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내가 너희를 위해 해 주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지 알게 되겠지. 내가 오늘 너한테 지시하는 모든 것에 주의하거라. 너희 앞길을 막는 아모리족, 가나안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내가 쫓아내 주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방심하지 마. 안

그러면 너희가 장차 들어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계약을 맺게 될 테니까. 그럼 너희는 끝장이야!

13-16 그들의 제단을 헐어 버리거라. 남근 모양의 기둥들도 박살내거라. 다산의 기둥들을 찍어 버리거라. 그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거라. 하나님, 이름이 '질투하시는 분'인 나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 어떤 계약도 맺지 말거라. 또한 그들의 음란한 종교예식을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제사상에서 같이 먹지도 말고! 너희 아들들을 그들 여인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거라. 그러한 남신, 여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너희 며느리로 삼았다간, 너희 아들들도 똑 같은 짓을 따라하게 될 게다.

17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거라.

18 무교절을 지키거라. 아빕월(유대 종교력 1 월-역자 주)에 있는 무교절 7 일간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무교병)만 먹거라. 이는 너희가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란다.

19 가축의 모든 수컷 중, 송아지든 양이든, 모태에서 나온 첫 것은 다 내 거란다.

20 단, 당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양으로 대속(redem)할 수 있단다. 만약 어린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거라면, 당나귀의 첫 새끼 목을 부려뜨리거라.

첫째 아들은 다 대속하거라.

내게 올 때에는 아무도 빈 손으로 오지 말거라.

21 6 일간만 일하고 제 7 일째에는 쉬거라. 그게 파종기건, 추수기건 일체 일을 멈추거라.

22 밀을 처음 베어 수확하는 절기(오순절=칠칠절)를 지키거라. 그리고 연말에는 수확의 절기(장막절=초막절=수장절)를 지키거라.

23-24 너희 남자들은 1 년에 세 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인 내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가 이처럼 1 년에 세 번 너희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땅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낸 후, 너희한테 땅을 넉넉히 줄 거니까. 너희 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너희 주변을 얼쩡거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해 주마.

25 나한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발효된 빵과 섞지 말거라.

유월절에 먹다 남은 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놔두지 말거라.

26 너희가 거둔 첫 열매 중 최상품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거라.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넣고 삶지 말거라."

27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들을 기록하거라. (태블릿 챙겨 왔지?^^) 이 말들로 내가 너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란다."

28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40 주야를 함께 보냈어요. 모세는 40 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10 가지 말씀(십계명)-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29-30 모세가 증거의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어 자기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물광피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고는 뒷걸음질쳤어요. 모세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31-32 모세가 그들을 소리쳐 부르자, 아론과 공동체 리더들이 모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과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모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대변인 브리핑^^)

33-35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길 마친 후, 얼굴을 베일로 가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에는 베일을 벗었지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았어요. (베일까지 뚫고 나오는 강렬한 광채^^)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있었답니다.

35장

예배 장소를 건축하다.

1 모세가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말했어요.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2-3 '6 일간만 일하거라. 제 7 일은 거룩한 휴일, 하나님의 거룩한 휴일이란다. 이날 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거라. 안식일날 집에 그 어떤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

예물

4 모세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5-9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 하나님한테 드릴 예물을 모으거라. 나 하나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물을 받거라. 금, 은, 구리와,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무두질한 양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나무, 등잔 기름, 관유와 향품에 들어갈 향료, 에봇과 흉패에 넣을 줄마노와 기타 보석류.

10-19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나 하나님께 지시한 것들을 만들거라. 성막의 텐트와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기둥받침, 증거궤와 그 (운반용) 채, 속죄의 덮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커튼, 떡상과 그 (운반용) 채와 그 부속기구들, 진설병, 성소 기물들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와 등잔 기름, 분향단과 그 (운반용) 채, 관유, 향품, 성막문에 쓸 휘장, 온전한 번제를 위한 번제단, 구리석쇠(그물망)와 (번제단 운반용) 채와 부속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 뜰의 담장으로 쓸 휘장과 기둥과 기둥받침, 성막문으로 쓸 휘장, 성막의 촉꽂이들, 담장용 촉꽂이와 끈, 성소에서 사역할 때 입을 공식 예복들, 제사장 아론과 아론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을 성별된 예복들을 만들거라.”

20-26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간 이스라엘 공동체 중,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며, 예물을 가져왔지요. 회막과 예배용 기물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브로치,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금붙이라면 뭐든지-금으로 된 패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고운 모시, 염소털, 무두질 한 양가죽, 돌고래가죽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다 가져왔어요. 또 하나님께 은이나 구리를 예물로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도 다 가져왔어요. 작업에 쓸 아카시아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가져왔고요. 옷감을 짓는 기술이 있는 여인들도 파란색, 자주색, 그리고 빨간색 직조물들과 고운 모시를 가져왔어요. 또 실을 짓는 재능이 있는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자아 가져왔어요. (캐시미어^^)

27-29 지도층들은 에봇과 흉패에 넣을 줄마노와 보석들을 가져왔어요. 뿐만 아니라 등잔 및 관유, 그리고 향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올리브유도 가져왔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드리길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30-35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보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을 선택하셨소.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과 기술, 재능, 노하우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만들고, 금, 은, 구리 작품들을 디자인해 제작하고, 보석들을 다듬어 세팅하며, 목재를 조각해 세련된 공예품들을 만들 수 있소. 또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뿐만 아니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다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각, 디자인, 직조뿐 아니라,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천과 고운 모시에 수놓는 재능도 주셨소. 그들은 뛰어난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만능 재주꾼들이라오.

36장

¹ 성소에서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일을 시작하세요.”

²⁻³ 모세가 브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각 있게 할 수 있도록 손재주를 주신 사람들에게 지시했어요. 그들은 이 일에 참여해 함께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들은 또 성소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를 통해 전달받았어요. 백성들은 날이면 날마다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쳤어요.

⁴⁻⁵ 성소 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백성들이 가져오네요!”

⁶⁻⁷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진영에 다음과 같은 지령을 보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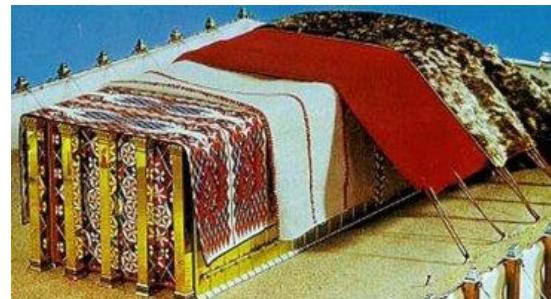
“여러분! 성소 건축용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세상에! 백성들에게 예물을 금지하는 지령을 내리다니! 작업에 필요한 물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자들이 차고 넘쳤답니다.

직조물들

⁸⁻¹³ 성막 일을 하러 온 솜씨 좋은 장인들이 고운 모시와 파란색, 자주색, 그리고 빨간색 실로 천사-그룹-모양을 수로 짜 넣은 직물 10장을 만들었어요. 직물은 한 장이 가로 14m x 세로 1.8m 크기였어요. 이러한 직물을 5장씩 연결, 두 세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각 세트의 가장자리에 파란 고리를 만들어 서로 맞물리도록 연결시켰어요. 또한 금으로 50개의 걸쇠를 만들어 두 세트의 직물을 서로 연결해 전체 하나로 성막 덮개를 만들었어요.

14-19 그 다음, 성막을 덮을 두번째 덮개로, 염소털을 짜서 직물 11장을 만들었어요. 직물의 크기는 가로 14m x 세로 1.8m였어요. 그리고 이 직물 5장을 한 세트로, 나머지 6장을 다른 한 세트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각 세트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씩을 만들어 달고, 구리 걸쇠 50개를 만들어 고리마다 구리 걸쇠를 걸어 두 세트의 직물을 서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무두질한 양가죽을 빨갛게 염색해서 그 위를 덮고, 또 돌고래가죽으로 양가죽을 덮어 성막 덮개를 완성했어요.



성막의 4중 덮개
(4색실 직물-염소털 직물-양 가죽-돌고래 가죽)

널빤지

20-30 그들은 또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었어요. 각각의 널빤지는 가로 4.6m x 세로 69cm의 크기로 만들었는데, 매 널빤지마다 촉꽂이 두 개씩을 달아 서로 튼튼히 맞물리게 했어요. 모든 널빤지를 똑같이 만들고, 은으로 널빤지 밑받침을 40개 만들어,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장을 받혔어요. 북쪽에 세울 널빤지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또 성막 뒤쪽, 즉 서쪽에 세울 널빤지 6장을 만들고, 성막 뒤쪽의 두 코너에 세울 널빤지 2개도 추가로 더 만들었어요. 이 코너용 널빤지는 위에서 아래까지 두 겹으로 만들어 두 장의 널빤지를 고리 한 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즉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도합 8장으로, 각각의 널빤지마다 아래에 은으로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 전체 16개의 밑받침이 있었어요.

31-34 또 아카시아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가로다지는 성막의 한쪽 벽면 널빤지에 5개, 다른 쪽 벽면 널빤지에 5개씩 만들어 널빤지들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연결했어요. 가로다지는 널빤지의 중간 높이에 달았어요. 또한 널빤지마다 금으로 도금하고, 가로다지에 매달 금고리도 만들고, 가로다지 역시 금으로 도금했어요.

35-36 또한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고운 모시실로 커튼을 만들었어요. 커튼에는 천사-그룹-모양을 짜 넣었어요. 또 커튼용 기둥 4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든 후, 금으로 도금하고 그 기둥들을 세울 기둥받침 4개도 은을 부어 만들었어요.

37-38 또 성막문으로 쓸 막을 만들었는데,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고운 모시실로 짜서 만들어, 그 위에 수를 놓았어요. 또 아카시아나무를 금으로 도금해서 막을 세울 기둥 5개를 만들고, 금 걸쇠 5개를 만들어 그 막을 걸었어요. 한편 기둥받침 5개는 구리로 만들었어요.

37장

증거궤(=언약궤=법궤)

1-5 브살렐은 아카시아나무로 증거궤를 만들었어요.

증거궤의 크기는 가로 114cm x 세로 69cm x 높이 69cm 였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안팎을 도금한 후, 모서리마다 금테를 둘렀어요. 또 금고리 4 개를 만들어 증거궤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두 개, 다른 한쪽에 두 개를 달았죠.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해, 증거궤를 운반할 때 양쪽 고리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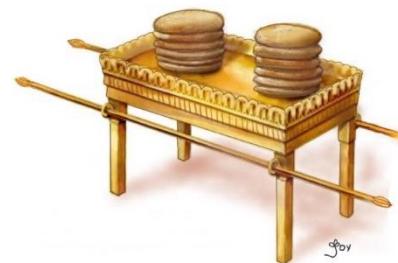
6 그는 또 순금으로 증거궤의 뚜껑(속죄의 덮개=속죄소=시은좌)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가로 114cm x 세로 69cm 였어요.

7-9 그는 또 금을 두들겨, 두 날개를 가진 천사-그룹-을 만들어 속죄의 덮개 끝에 자리잡게 했어요. 하나는 한쪽 끝에, 다른 하나는 다른 쪽 끝에 배치했지요. 그렇게 속죄의 덮개와 천사-그룹-를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두 천사는 날개를 펴서 그날개로 속죄의 덮개를 덮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속죄의 덮개를 내려다보게 했어요.

떡상(=진설병대)

10-15 그는 또 아카시아나무로 가로 91cm x 세로 46cm x 높이 69cm 인 떡상을 만들어 순금으로 도금한 후, 각 모서리에 금테를 둘렀어요. 그리고 손바닥 너비 높이의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가장자리도 금테로 둘렀어요.

또한 금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떡상의 윗면과 평행으로 떡상 다리 네 개에 하나씩 붙였어요. 그 고리는 떡상을 운반할 때 사용할 채를 끼워 넣는 용도였지요. 또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도금했어요. 채 역시 떡상을 운반하는 용도로 만든 거였어요.



16 또 순금으로 떡상의 부속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접시와 대접,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주전자였어요.

등잔대(=금등잔대)

17-23 또 순금을 두들겨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등잔대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 개가 나오게 했는데, 한쪽에서 3 개의 곁가지가, 다른 한쪽에서 3 개의 곁가지가 나오게 했어요. 각각의 곁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아몬드꽃 모양의 등잔 세 개를 연결했어요.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아몬드꽃 모양의 등잔 네 개를 쌓아 놓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 전체를 하나로 이어지게 했어요. 등잔 7 개와 심지 가위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24 브살렐은 순금 34kg 짜리 금궤로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을 만들었어요.



분향단(=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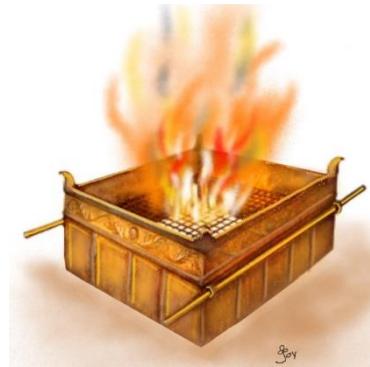
25-28 또 아카시아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가로 46cm x 세로 46cm x 높이 91cm 였고, 뿔은 분향단과 하나로 이어 만들었어요. 또 분향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도금하고, 모서리마다 금테를 둘렀어요. 그리고 금고리 두개를 만들어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운반용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29 그는 또 향품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 거룩한 관유와 순수하고 향기로운 향재료를 만들었어요.

38장

번제단

1-7 브살렐은 또 아카시아나무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가로 2.3m x 세로 2.3m x 높이 1.4m 였어요. 번제단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이랑 번제단을 하나로 이어 만든 후, 구리로 도금을 했어요. 또한 번제단의 모든 기구, 즉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도 다 구리로 만들었어요. 또 번제단용 석쇠를 구리로 만든 후, 번제단 중간 높이의 턱에 걸었어요. 그리고 구리석쇠 네 모퉁이에, 채를 끼워 넣을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어요. 또한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놋쇠로 도금한 후, 번제단 양 옆의 고리에 끼워 넣어 번제단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번제단은 널빤지로 만들어 속이 비게 만들었어요.

물두멍(=대야)

8 브살렐은 또 성막문에서 섬기기로 한 여인들이 바친 구리거울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었어요.



뜰

9-11 브살렐은 또 다음과 같이 뜰을 만들었어요. 우선 남쪽 뜰을 두르는 데 쓸 휘장을 고운 모시로 짜서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46m 였어요. 그리고 휘장을 두르는 데 쓸 기둥 20 개와 기둥받침 20 개를 구리로 만들고, 기둥의 걸쇠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죠. 북쪽 뜰을 두를 휘장 역시 남쪽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12-20 서쪽 뜰을 두를 휘장은 23m 길이로 만들고, 휘장을 두르는 데 쓸 기둥 10 개와 기둥받침 10 개도 만들었어요. 또 기둥의 걸쇠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어요. 맞은편, 즉 정문 쪽-동쪽-뜰을 두를 휘장도 23m 길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쪽 정문을 중심으로 한쪽에 기둥 3 개와 기둥받침 3 개를 만들었고,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었어요. 뜰의 사면을 두를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꼳 모시실로 만들었어요. 한편 기둥받침은 구리로 만들고, 기둥걸쇠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지요. 뜰을 두르는 휘장을 걸 기둥머리는 모두 은으로 덮고, 기둥마다 은고리를 달았어요. 동쪽 정문에 칠 휘장은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꼳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짬는데, 길이는 9m 였고, 높이는 뜰의 다른 휘장 높이와 마찬가지로 2.3m로 맞췄어요. 또 정문 휘장을 걸 기둥 4개랑 기둥받침 4개를 구리로 만들고, 그 걸쇠는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둥의 머리는 은으로 덮고, 고리도 은으로 만들었지요. 성막과 담장의 촉꽂이는 모두 구리로 만들었어요.

²¹⁻²³증거의 돌판을 둔 성막 기물 제작에 든 재료들의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 레위인들을 시켜서 정리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이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모두 만들었어요. 브살렐과 함께 일한 사람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으로서,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이자,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는 사람이었어요.

²⁴금: 성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금은 모두 다 자발적으로 바친 것으로서, 성소의 표준 중량으로 862kg 이었어요.

²⁵⁻²⁸은: 인구조사 시, 등록한 공동체 백성들이 바친 은은 성소의 표준 중량으로 2,920kg 이었어요. 이것은 20 세 이상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20 세 이상 남자 중 참전 가능한 자-역자 주) 603,550 명이, 각각 1 베가, 즉 0.5 세겔씩 바친 것이었어요. 성소와 휘장의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 데 소요된 은이 모두 3,250kg 였고, 밑받침이 모두 100 개였으니까, 밑받침 1 개당 은 32.5kg 이 들어간 셈이지요. 또 기둥에 연결할 걸쇠와 기둥의 머리 및 줄을 만드는 데 남은 은 17kg 을 사용했어요.

²⁹⁻³¹구리: 백성들이 바친 구리는 모두 약 2 톤이었어요. 구리는 회막의 문과 번제단과 번제단 석쇠, 번제단의 모든 부속 기구들, 뜰을 둘러 친 휘장 받침들, 뜰 정문의 받침들, 그리고 성막과 담장의 모든 촉꽂이들을 만드는 데 사용됐어요.

39장

1 제사장 예복: 그들은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로 성소에서 사역할 때 입을 예복을 짜서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도 만들었어요.

2-5 에봇: 그들은 금색,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끈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을 얇게 두들겨 펴서 오려내 가는 실처럼 만들어,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 문양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또 에봇 양쪽 끝에 멜빵을 만들어 조일 수 있게 했어요. 아름답게 장식한 허리띠도 똑 같은 방법으로, 금색,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끈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하나로 이어 붙였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6-7 그들은 또 줄마노를 금테에 물린 후,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8-10 흉패: 또 에봇과 같이 금색,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끈 모시실로 흉패를 만들었어요. 흉패는 두 겹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23cm x 23cm였어요. 흉패 위에는 보석들을 네 줄로 박아 넣었어요.

첫째 줄: 흥옥수, 토파즈, 에메랄드,

11 둘째 줄: 루비, 싸파이어, 크리스탈,

12 셋째 줄: 풍신자석, 마노, 자수정,

13-14 넷째 줄: 녹주석, 줄마노, 벽옥

그리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테에 물렸어요. 12 개의 보석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상징했으므로, 각각의 보석에

12 지파의 이름을 인장반지처럼 새겨 넣었어요.

15-21 그들은 또 순금을 사슬로 끈처럼 꼬아서 흉패에 매달았어요. 금테 2 개와 금고리 2 개를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양쪽 끝에 달았어요. 그리고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흉패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맴어요. 그 다음 끈 사슬의 다른 쪽 두 끝을 에봇 앞쪽 멜빵에 달린 두 금테에 맴어요.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의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어요. 그리고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장식용 허리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어요. 파란색 줄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연결해



맸는데, 장식용 허리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흉패가 예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22-26 가운(파란색 겉옷): 그들은 또 예봇 위에 입는 가운을 전체 파란색으로 만들었어요. 가운 중심에 옷의 칼라처럼 구멍을 내고, 그 구멍 둘레가 찢어지지 않도록 감침질해 만들었어요. 가운 자락 둘레에는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늘게 꼳 모시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가운 자락의 석류술 사이사이에 달았어요. 사역용 예복으로서, 가운 자락에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런 식으로 달았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27-29 기타: 그들은 또 아론과 아론 아들들이 입을 긴 옷을, 직조공이 짠 고운 모시로 만들었어요. 또 가늘게 꼳 모시실로 고운 모시 두건과 모시 모자, 그리고 모시 속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늘게 꼳 모시실과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도 만들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30-31 명패: 그들은 또 명패, 즉 거룩한 관을 순금으로 만들어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파란색 꼳에 매어 두건에 단단히 매달았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32 이렇게 성막, 곧 회막 공사가 완성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모두 다 행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33-41 그리고 성막과 그 기물들을 모세에게 가져와 보였어요.

조이는 데 쓰는 걸쇠,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무두질 한 양가죽 덮개, 돌고래가죽 덮개, 커튼, 증거궤와 운반용 채, 속죄의 덮개, 떡상과 그 부속 기구들, 그리고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그 맞춤형 등잔들과 그 부속기구들 그리고 불을 밝힐 기름, 금 분향단, 관유, 향기로운 향품, 장막문으로 쓸 휘장, 구리 번제단, 번제단용 구리석쇠, 번제단 운반용 채와 기타 부속기구들, 물두멍, 물두멍 받침, 뜰의 휘장들과 기둥과 기둥받침, 뜰의 문에 쓸 휘장과 그 끈과 촉꽂이, 성막, 곧 회막의 사역에 필요한 기구들, 성소에서 사역할 때 입을 실로 짠 예복들, 대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예복과 아론 아들들의 제사장 예복들.

42-4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완수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확히 일을 수행한 걸 보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40장

모세가 모든 일을 마쳤어요.

1-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 월 1 일에 성막, 즉 회막을 설치하거라. 증거궤를 그 안에 넣고 커튼으로 증거궤를 가리거라.

4 또 떡상을 들여다 설치하고, 등잔대와 등잔도 배열하거라.

5 금분향단은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문 앞에 커튼을 달거라.

6 온전한 번제를 위한 번제단을 성막, 즉 회막문 앞에 설치하거라.

7 물두멍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설치하고 그 안에 물을 담아 놓거라.

8 뜰의 4 면 울타리를 설치하고 뜰 입구에 휘장을 달아 놓거라.

9-11 그 다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물들에 부어 성막과 그 모든 기물들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만들거라. 온전한 번제를 위한 번제단과 그 모든 부속품에도 기름을 부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거라.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거라.

12-15 마지막으로, 아론과 아론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거라. 그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힌 후,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거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흰색 긴 옷을 입힌 후, 그들 아버지하고 똑같이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거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자손대대로 전해내려 갈 영원한 제사장직을 얻게 될 것이다."

16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모두 다 실행했어요. 하나님도 빠짐없이 다 실행했죠.

17-19 (출애굽 후) 제 2 년 1 월 1 일에, 성막이 설치됐어요.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성막을 설치했지요. 먼저 받침대들을 놓고, 널빤지들을 세우고, 가로다지를 설치하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에 4 중 덮개를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실행한 거예요.

20-21 모세는 또 증거궤 안에 증거의 돌판을 놓고, 증거궤에 운반용 채를 끼워 넣은 후, 증거궤 위에 뚜껑-속죄의 덮개-을 덮었어요. 그리고 성막에 증거궤를 들여놓은 후, 커튼을 쳐서 증거궤를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실행한 거예요.

22-23 모세는 회막 안, 성막의 북쪽, 커튼 바깥쪽에 떡상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진열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실행한 거예요.

24-25 그리고 모세는 회막 안, 성막의 남쪽, 즉 떡상 맞은 편에 등잔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등잔을 설치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실행한 거예요.

26-27 또 모세는 회막 안, 커튼 앞쪽에 금분향단을 설치한 후,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실행한 거예요.

28 그리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어요.

29 또한 성막, 즉 회막문 어귀에 온전한 번제를 위한 번제단을 설치한 후, 온전한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실행한 거예요.

30-32 그리고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설치한 후, 물을 채워 넣어 씻을 수 있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 아들들은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 손발을 씻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실행한 거예요.

33 마지막으로, 모세는 성막 둘레에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성막문에 휘장을 쳤어요.

이로써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34-35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막을 가득 채웠어요. 구름이 회막 위에 임해서,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찼지요.

36-38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의 구름이 걷힐 때마다, 짐을 꾸려 출발했어요. 하지만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성막 위에,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밤에는 그 속에 불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 내내 볼 수 있었답니다.

